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0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18일(음력 1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화마로부터 사찰 수호
불교·정부, 대책 '맞손'

국가유산청·조계종 등 3월 12일 정책간담회

성원 스님 등 현장 의견 전달
소나무 위주 산림에 문제 제기
고운사, 차나무로 보호림 조성
성보 긴급 이운할 '벙커' 필요
유산·지형 등 고려 대책 마련을
허민 "논의 통해 내년 사업 진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각을 지키기 위해 11명의 소방대원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해당 전각 인근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원들의 방화복도 전부 녹았어요. 불태풍이 생기면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성 고운사 총무부장 범종 스님이 전한 2025년 3월 25일 급박했던 고운사 산불 현장에 대한 증언이다. 이날 산불로 고운사가 소유한 사찰림 249ha 가운데 97.6%인 243ha가 소실됐으며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불에 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며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운사 산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아픈 사례다.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조계종과 국가유산청 등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3월 1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실에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 부처와 불교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불교문화유산의 산불·화재 대응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논의했다.

특히 조계종에서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 고운사 총무부장 범종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중앙종회의원 현무 스님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방화수종 변화 · 방화 벙커 설치

고운사를 대표해 참석한 범종 스님은 초기 진화 시스템 미비와 소나무 위주의 산림이 피해를 키웠음을 지적하며 "사찰 경계 기준 100m이내에는 소나무를 전면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화수(防火樹) 역할을 할 수종을 식재해 보호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고운사를 비롯한 말사에서는 올 여름부터 방화수종인 차나무를 식재할 계획임을 전했다. 범종 스님은 "차나무는 상록 활엽 저목으로 수분 함량이 높아 내화성이 우수해 사찰 경내 하층 식재에 최적화돼 있다"며 "추운 겨울도 이길 수 있는 품종이 최근 개발됐고, 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방화수종 변경에 공감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소나무는 산불 발생 시 복사열을 커지게 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평가했다.

홍광표 동국대 WISE캠퍼스 조경정원디자인학부 명예교수는 "산불 발생시 안전구간이 중요하다. 산불을 한번 끊어줘 골든타임을 만들고 산불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이라며 "산지 사찰은 낮밤으로 계곡류가 불고, 지형도 천차만별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구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과 인명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벙커(수장고)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운사 산불 당시 11명의 소방대원이 세면실로 활용되던 공간으로 피신해 화를 피한 바 있다. 성원 스님은 "산지 사찰에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찰에서 다량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유산의 긴급 이운 및 수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봉 스님은 "권역별 비상 수장공간 지정제를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면에 계속



"나도 달마키즈" (사)이웃을돕는사람들(대표이사 호산 스님, 봉선사 주지)이 주최한 제20회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 대회가 3월 7일 평창 모나용평리조트에서 열렸다. 호산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달마오픈 챔피언십(일명 달마배)은 20여 년간 스노보더 유소년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수많은 '달마키즈'를 배출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가 된 '달마키즈'와 꿈나무 선수들이 함께한 이날, '모두의 축제'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각 부문 입상자들에게는 총2000만원 상당의 트로피와 상금, 스노보드 용품이 전달됐다.
평창=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본지·총화종, '인권사상 확산' 업무협약

3월 11일 업무협약 체결
20일 총화인권위 발족식
"인권상 안착 위해 협력"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한명우)와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불교계 인권사상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와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3월 11일 서울 본지 사장실에서 '인권상 홍보 및 인권사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교계 인권사상 확산과 '총화종 인권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총화종 인권상'은 지역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총화종 총본산이 위치한 영동군의 추천을 받은 이에게 수여된다. 총화종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향후 충청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한명우 대표는 협약식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총화종에서 인권상을 제정한 것은 사바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불사"라며 "불교언론으로서 인권 수호의 든든한 도반이 돼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대표(사진 오른쪽)와 혜각 스님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종단 체계를 정립한 데 이어 '미래를 여는 포교, 세계를 이끄는 불교'를 표어로 정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총화종 인권상 제정과 인권위원회 출범은 그 첫 발걸음으로, 불교계 대표 언론인 현대불교신문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화종은 3월 20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총화인권위원회 발족식을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중동 전쟁 멈추고 평화로"

불교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성북구사찰연합 발원문 채택

불교계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성북구사찰연합회(회장 원경 스님)도 3월 6일 '인류화합과 전쟁종식을 위한 간절한 발원문'을 채택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했다.

국내 23개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중동의 총성을 멈추고 자비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라' 제하의 공동 성명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헤아려 남을 죽이지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셨다"며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는 이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중동에 필요한 것은 고통을 멈추는 평화"라며 "대화와 협상,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여수령 기자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10월 불국사서 개최

종단협, 3월 11일 이사회·정기총회
3월 30일~4월 1일 예비회의 진행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순례는 호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연력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1일 '불기 2570(2026)년 제1차 이사회 및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한·중·일 불교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우의를 다지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10월 경주 불국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70(2026)년 제1차 이사회 및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예비회의 관련의 건을 비롯해 임원 변경의 건, 불기 2569년도 결산, 2026년도 회원종단 의전순서,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순례 사업 등의 안건을 다뤘다.

회의에 앞서 회장 진우 스님은 "우리 각 종단이 펼치는 수행과 포교, 사회적 실천이 모여 이 땅에 평화와 상생의 문화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길 발원한다"며 "오늘 여러 안건이 지혜롭게 논의돼 종단협이 한국불교의 공공성과 연대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단협은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예비회의를 개최한다. 예비회의에는 각국 교류위원단이 참석하며, 한국 측은 종단협 상임이사 종단으로 구성된다.

예비회의에서는 대회 주제, 일정, 장소 등 세부 준비 계획 공유와 한·중·일 삼국 합의서 체결이 이뤄진다. 한국 측은 본대회 장소로 경주 불국사를 제안할 계획이다. 10월에 열릴 본대회에는 각국에서 약 100여 명씩이 참석해 학술세미나와 평화기원법회 등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올해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순례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호주에서 진행된다. 순례는 2012년부터 회원 종단 간 화합과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종단협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승인과 정관 개정이 의결됐다.

이날 오후 이어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의 '불기 2570년도 제46차 정기총회'에서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 일본대회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천태종 총본산 비예산 연력사에서 개최된다. 올해 일본대회는 '현대에 있어서의 신과 행'을 주제로 양국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강연회, 공동성명문 채택, 환영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예·결산 승인과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이사장 연임 등 임원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상진 스님은 "협의회 소속 스님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한일 양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물꼬'

주광덕 시장에 공로패 수여
20여 명 구성 '프로목민관'
적극 행정으로 모순 해소


진우 스님이 주광덕 남양주시장(오른쪽)에 공로패를, 양기영 남양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해 남양주시 내 전통사찰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가능하게 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광덕 시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 중인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공로를 치하했다. 실무 책임을 맡은 양기영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했다.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전통사찰 내 지목 현실화와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거나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전통사찰 경내지가 실제 종교용지임에도 일부 토지 등기가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불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내지임에도 다른 지목으로 묶이면서 사찰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남양주시는 규제개혁 차원의 적극 행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목민관' 제도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명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부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 내 11개 전통사찰 가운데 봉선사와 불암사는 경내 토지의 종교용지 전환과 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수정사와 석천암도 경내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우 스님은 이날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준 데 대해 종단 차원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남양주시 사례가 계기가 돼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AI도 해결 어려운 마음 평안, 선명상으로"

3월 1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서
2025년 결산·포교 현안 보고


조계종은 3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AI 시대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의 평안'을 선명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K-선명상 세계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3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저출산, 자살률, 급속한 노령화,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행복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고 여러 사건과 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한 기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덜어 주며 평안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포교 전법의 길로 '선명상'을 선택했다"며 "우리 민족 고유의 수행 전통인 선(禪)과 오늘날 세계적 흐름이 된 명상(Meditation)을 접목해 탈종교 시대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불교가 자연스럽게 사회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선명상을 널리 확산시켜 어느새 불교와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어 가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선명상을 국민 마음 평안의 길이자 국가적 '마음 안보'의 길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불교 문화의 안정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성과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통과됐고, 사찰 경내지를 종교용지로 제도화하는 법안도 국회와 협의해 상당한 성과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단과 전통사찰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법 활성화를 위한 포교 현안 보고 △불기 2569(202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 진행 경과 보고 △사찰 전각 주변 산불 예방 안전공간 조성 사업 추진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에는 특별교구 2곳을 포함한 27개 교구본사 가운데 25개 교구가 참석했으며, 월정사·화엄사·대흥사·선운사는 대리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상진 스님 "태고종 발전 일굴 동력 되길"

동방불교대학 입학식
76명 입학, 2년간 정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법담 스님)이 신입생을 맞고 태고종을 이끌 인재 양성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동방불교대학은 3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1982년 개교한 동방불교대학은 태고종립 교육기관으로 불교학과와 범패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리와 의례가 조화된 교육을 통해 종단 교역자와 불교 지도자를 양성 중이다.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 불교학과 52명, 범패학과 24명 등 총 76명이 입학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신입생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40년 간 본교는 종단의 중추적 교역자와 불교 지도자를 배출했다"면서 "오늘 입학식을 계기로 신입생들은 본교의 일원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품고 종단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3개월(출강·통신) 속성 교육 (제7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6년 4월 6일 (월) 오후 3시 (목탁, 필기구 지참)
- 출 강 반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 신 반 : 교재, 교육자료, 강의영상자료(동영상파일) – 메일 또는 카카오톡 발송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공놀이'…서울불교박람회 대박 예감

4월 2~5일 코엑스 B홀에서
'空' 뽑고, 뒤집고, 완성하는
MZ 겨냥 참여 콘텐츠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불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올해는 '공(空)'을 직접 뽑고, 쓰고,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인 '공(空)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불교 콘텐츠를 선보인다. 참여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공(空) 뽑기' 체험이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코인을 활용해 무작위로 공을 뽑고, 공 안에 담긴 메시지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공에는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공 질문지' △'공(空)'을 뒤집으면 '운(運)'이 드러나는 메시지 카드 '행운지' △'행운의 전당'에 마련된 '행운 전달자'의 사인볼로 교환 가능한 '행운의 공 당첨지' 등 세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공(空) 질문지'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현장에서 스님과 문답을 나누며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답을 찾고, 정답을 확인한 뒤 '가피박스'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불교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주최 측은 "전통적인 수행 문화를 현대적인 체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스님과 젊은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공놀이' 이벤트 부스 조감도.

'공(空) 수거' 프로그램은 전시장에서 뽑은 공(球)을 행사장 내 또는 인근 봉은사에 마련된 조형물에 다시 봉안(奉安)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다. 참여자는 자신의 서원과 마음을 담아 공을 완성하고, 이를 설치물에 더함으로써 개인의 염원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상징적 조형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설치물은 사찰 경내를 아름답게 채우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자리하며, 참여자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 공동체적 의미를 확장하는 ESG형 체험이다. 환경과 공동체,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현대적 방식으로 불교의 공(空)사상과 지속가능한 가치 실천을 연결하는 특별한 시도다.

'공(空) 뽑기'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행운의 전당'은 스님을 비롯해 연예·체육계 인사, 인플루언서 등이 '행운 전달자'로 참여하는 특별 전시다. 이들은 직접 작성한 행운의 메시지와 자필 사인이 담긴 '행운공'을 기부해 관람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한다. 각 행운 메시지에는 인생의 좌우명, 마음에 남는 한 문장, 혹은 삶을 지탱했던 명언이 담겨 있어, 이를 받은 이에게 또 다른 '행운'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올해 포스터와 전시 디자인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구조, 울림, 파동의 이미지를 확장해 구현했다. 원형의 반복과 흐름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 구조를 공간 전반에 적용해 관람객이 전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의 개념을 체감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포스터와 전시 그래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등 〈반야심경〉의 구절을 시각 요소로 활용해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각적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관람객의 디자인부터 현장 이벤트까지 완성형 경험으로 체감하도록 구성됐다.

조계종은 "이번 전시는 공(空)사상을 처음 접하는 관람객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설명 중심이 아닌 체험 중심의 구성으로, 관람객이 직접 공을 뽑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불교철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담마토크', '야단법석', '릴랙스위크', '국제선명상대회' 등 연계 프로그램과 함께 '불교의 달'을 여는 4월의 첫 번째 행사로 운영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구신도회 활성화' 간담회

3월 12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서
'내실 다지며 조직 강화' 강조
진우 스님 "불교 중흥에 주춧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가 3월 12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중앙신도회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가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신도회 활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신도회 회장단 및 교구신도회 임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3월 12일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충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기조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불교 중흥에 큰 주춧돌 역할을 신도회가 하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정원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을 '내실을 다지는 조직 강화의 해'라고 명명하고 "교구와 사찰, 신도조직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신도회가 종단을 대표하는 신도조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구본사와 교구신도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스님들의 가르침과 신도회장들의 지혜를 모아 중앙과 교구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용식 사무총장은 '중앙신도회 조직강화 사업 공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신회 존립 근거와 역사, 현재,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 사무총장은 "힘한 불교, 디지털 시대라는 현대적 흐름 속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 변화 선도와 사회적 실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디지털 시대 도약을 위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신한은행과 신도증 체크카드 출시

3월 11일, 전략적 협업 업무협약
진우 스님 "도움되는 상품" 강조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손잡고 신도증 겸용 체크 카드를 발급한다. 1994년부터 운영돼 온 신도등록 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은 3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신한은행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신도등록 제도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도 멤버십 혜택 확대, 종단교무금 납부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신도증 겸용 전용 카드 발급 및 활성화 △신도 관리를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신행 생활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신도증 겸용 체크카드 출시와 종단 신도를 위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신도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도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지난해 총무원 화재복구기금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마음 모아준 덕분에 복구가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협약을 통해 신도증 발급과 디지털 포교 활동에 신한은행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1366 상담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민노총, 3월 12일 조계사서 집회
조계종복지재단에 문제 개선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가 3월 1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에 서울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이하 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근로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1366 서울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다.

이날 이들은 재단에 △고용불안 해소 △교대근무제 개선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 △계속되는 인력공백 해결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용불안 해소에 목소리를 높이며 "수탁기간 동안 고용유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비민주적인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노동자를 1년마다 반복 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인력공백으로 인한 살인적인 교대근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단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규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노동자들이 말하는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소통이 먼저"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명상 대가 서울로…'세계 명상의 날 포럼'

정토회 · WMDC 3월 20~21일
12개국 26명 종교인 등 참석
'세계 명상의 미래' 주제 논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세계 12개국 명상 대가들이 명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스님)와 세계 명상의 날 위원회(WMDC)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세계 명상의 날 제2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하나된 마음, 과학과 전통을 잇는 세계 명상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12개국 종교 지도자, 명상가, 과학자, 학자 등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세계 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더 나은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종교·학문·국가 간 다양한 견해와 영감을 교류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앞서 '제1회 세계 명상의 날 포럼'은 2025년 10월 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150여 명의 저명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회 포럼에서는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명상 표준 체계 정립을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공통의 어젠다로 선정했다. 이어 2025년 12월 21일 저녁 9시 '제1차 세계 명상의 날 지구촌 15분 동시 명상'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5개의 세션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과관위원회 위원장의 특별 축사와 석종사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1세션에서는 재그프리트 차트왈 교수(하버드, 매사추세츠 병원 기술평가연구소장)와 마크 호세 라인하르트 대표(이슬람 수니 명상 지도자)가 '현대 과학과 정신세계의 격차를 좁히고 통합된 명상 환경의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불교,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유교, 도교 등 각 종교별 명상지도자들의 다양한 명상 전통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저녁 세션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종교의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행사 둘째 날은 '명상의 과학적 기초'를 주제로 하여 장동선 박사(카이스트 뇌과학자), 린 후앙 대표(행복대학 창립자), 네이선 지신 미션 박사(류코쿠 대학 및 웨스트 대학 겸임교수) 등 8명의 과학자, 의사, 교수 등이 '명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류의 웰빙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명상의 과학성'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발표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명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과 공동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현대인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한 해법과 더불어 기후 위기, 사회 갈등과 분쟁,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명상의 효과에 주목했기에 유엔이 '세계 명상의 날'을 지정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각 종교, 학문, 국가들의 다양한 명상의 전통을 활발히 교류하고,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세계 명상의 날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된다.

로터스월드·비로자나선원, 캄보디아 초등생 지원

2월 27일, 215명에 학용품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도


로터스월드와 비로자나 국제선원이 캄보디아 시엠립 주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재학생 215명에게 교복, 체육복, 책가방, 학용품을 지원했다.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비로자나 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이 캄보디아 시엠립 주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재학생 215명에게 교복, 체육복, 책가방, 학용품을 지원했다.

2월 27일 열린 기증식에는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꺼우깍(Kok Kak) 마을 주민, 홍 나이첸 로터스월드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국 국가 제창, 내빈 소개, 환영사, 축사, 물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혹 팔리(Hoch Phally) 교장은 "비로자나국제선원과 로터스월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반나 보파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 가방, 교복, 체육복을 지원해 준 한국의 비로자나 국제선원에 감사하다"며 "학교를 새로 지어 주고, 학용품도 매년 지원해 줘 친구들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이번 학용품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원한다. 스님은 "학용품, 교복 등 물품 지원과 병행해 올해부터 매년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사찰 신도들이 발심해서 설립한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215명의 초등학생이 재학 중인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는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과 신도들이 모연한 기금으로 2022년 4월 신축·개교했다. 교실 2개동(총 8칸), 화장실 4칸, 정수시설 1개, 소각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는 지역 내에서 가장 쾌적한 시설을 갖춘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또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로자나 국제선원 신도들은 로터스월드를 통해 재학생 27명과 1:1 아동결연을 맺고 매월 쌀과 학용품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해외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방재 관제 시스템, AI 고도화 시급

1면에서 이어짐

초동 대처부터 장기 로드맵까지

초동 대처부터 화재 방재시스템 고도화, 유산·사찰별 종합 대책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들도 제언됐다.

성원 스님은 AI를 이용한 사찰 방재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스님에 따르면 1000여 곳의 사찰에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구축한 방재시스템이 있으나 노후화와 오작동의 문제가 적지 않다.

현무 스님은 사찰별, 문화유산별, 상황별 방재 대책과 상황 대응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지리산 법계사 삼층석탑은 해발 1400m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런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찰마다 재난 상황이 전부 달라 일괄적인 매뉴얼로는 대응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유산·상황별 종합적 방재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주 국가유산청 상근전문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종합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만, 방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의 산불 대응을 위한 실무TF를 구성해 내년 예산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차기 회의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안전부 등과도 확대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갈등·대립 벽 허물길"

1면에서 이어짐

불교시민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합의나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력에 의존한 일방적 공격과 보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더 큰 파괴와 희생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중단 △이란의 군사적 긴장 확대 행위 중단 △모든 당사국의 보복과 군사 대응 중단 및 외교적 해결 노력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와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생명을 해치는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과 파괴의 길이 아니라 자비와 공존,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생명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전쟁 중단과 평화 실현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모든 총성이 멈추고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사찰연합회는 3월 6일 서울 삼원사 대웅전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인류화합과 전쟁종식을 위한 간절한 발원문'을 통해 전쟁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향한 간절한 자비의 마음을 표현하며 "간절한 발원이 헛되지 않아, 모든 생명이 전쟁 공포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함께 웃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또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이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두터운 벽을 허물길 염원했다.

동참 대중들은 "세상의 평화는 개인의 마음평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겠다"면서 "내 안의 미움과 원망부터 내려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미소로 평화의 물결을 넓혀가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 임은호 기자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개설한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첫 강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0돌 동국대, '참 나 찾는 여행' 특별 강좌

건학 120주년 기념해 운영
10인 명사 초청 특강 진행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건학120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자아 성찰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특별 교양 강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적 성장을 넘어 '창조적 자기 진화'를 목표로 하며, 사회 각계의 명사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난다.

초청 멘토 특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재철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손종원 셰프 △이재용 아나운서 △홍석천 방송인 겸 사업가 △썬킴 역사스토리텔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태민 오태버스(주) 대표이사 △윤승철 작가(세계최연소 극지 마라톤 그랜드슬래머) △김민석 극단청명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

체험형 힐링 실습프로그램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면치유 과정을 제공한다. 산림청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자연교감 프로그램 '남산 힐링 숲체험', 명상과 휴식의 시간인 '1박 2일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통해 내면의 단단한 자아를 깨우는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재웅 총장은 3월 3일 첫 강의에 참석해 "이번 강의는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압도적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신중일 기자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

포교사단, 3월 7일 올해 사업 확정
강의수 단장 "시대 맞는 포교방식"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의수)이 올해 슬로건을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로 정하고 조직 역량 강화와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특히 구성원 재교육을 실시해 포교사 개개인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범 제26주년 및 제13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 앞서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의수 단장은 올해 활동 슬로건을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로 제시하고 즐겁고 품격 있는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널리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 기조로 △포교 성장 및 포교사 위상 강화 △효율적 조직 및 인력 관리 △포교사단 방향성 정립 △화합과 제도개선 활용 등이 제시됐으며 신규 포교사 증대 및 새로운 포교 방안 강구를 위한 홍보 강화, 수행 중심 활동 독려, SNS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의례, 불교명상, 불교문화 등 4대 분야 재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수 단장은 "안정된 조직 발전과 함께 포교사 개개인이 현장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방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보살행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중근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와 제주지역단 제주총괄 교정교화팀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김종례 서울지역단 포교사와 부산지역단 경찰포교 대세지팀 등 20명의 개인 및 11개팀이 '포교사단장상'을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공무원불자聯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3월 7일 서울 법련사서 신년법회
진경 스님, 청정 책임·실천 당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가 3월 7일 서울 법련사 대웅전에서 병오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공무원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사진〉

공불련 전·현직 회원 1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금강경〉 독송과 정근으로 시작됐다.

진명기 공불련 비대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인사말에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작은 판단 하나, 말 한마디, 행정 한 건이 곧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불자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직 업무의 현장 하나하나가 곧 수행 도량이라는 마음으로 원칙은 굳게 지키되,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는 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공불련 회장은 공석 상태로, 지난해 12월 비대위를 구성해 제14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진명진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새로운 회장이 취임해 공직 사회에 부처님 법을 더 널리 펼칠 수 있게 되길 발원한다"면서 "새로이 구성되는 집행부와 더불어 회원 상호 간 수행과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청정한 공직 문화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직무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면서 공무원 불자로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해내는 책임과 실천을 당부했다.

이날 공무원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청정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같이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변치 않는 신심으로 정진하겠다"면서 "부처님 법신이 법계에 두루 퍼져 온전한 불국토가 이뤄지길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임은호 기자

한마음선원 본원, 보살 임원단 수련회 성료

지역장 등 소임자 300명 참여
혜수 스님 "주인공으로 해 나가라"
서로 신행 경험 나누며 교류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보살 신행회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제1회 한마음선원 본원 보살 임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수련회 장소로 출발 전 본원 대중 스님들과 보살 임원들이 법당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 스님)에서 수행하며 봉사하는 신행회 소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신행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보살 신행회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제1회 한마음선원 본원 보살 임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슬기로운 보살생활, 푸르게 살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지역장·그룹장·총무 등 신행회에서 소임을 맡아 수행과 봉사를 이어 가고 있는 본원 보살 임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행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7일 열린 입재식에서 참석 대중들은 '진실한 보살행'을 주제로 한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을 통해 수행자의 삶과 보살행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행 선사는 "진실한 행을 하는 데서, 실천을 하는 데서 이게 진실한 보살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살 아닌 보살이 돼야 한다"면서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자꾸자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 근본에 내려놓고 일임하고 생각을 돌려 이익하게 놓고 감사하게 놓는다면, 이것이 공부하는 데도 나를 깨닫는 데도 지름길이 되고 남을 위해서도 봉사가 되며 보살행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들은 보살 신행회 임원단의 역할이 단순한 직책이나 소임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의 자리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임원단 여러분 모두 수련회를 준비하며 감사 노트를 쓰고 큰스님 법문을 마음에 새겼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음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몽땅 내려놓고, 주인공이라는 힘으로 해 나가는 감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준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내년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수련회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가는 소임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기정 신도회 수석부회장도 축사에서 "보살 신행회는 창단 50주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마음 심(心)' 자를 근본으로 삼아 조직되었고, 현재는 서울·경기 40여 개 지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슬기로운 보살생활'이라는 주제처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 대중들은 김혜경 신도회 총무부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매 순간 지혜로운 판단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스님들을 외호하겠다. 내가 한다는 상을 세우지 않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공심으로 행하며 공용·공식으로 부처님 심부름을 잘 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입재식 이후에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의 특강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진행됐다. 혜솔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법문에서 말씀하신 마음공부의 이유를 설명하며 세 가지 의미를 전했다.

이에 대해 혜솔 스님은 "첫째는 우리가 무명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둘째는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니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 셋째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마음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함"이라며 "마음공부는 단지 개인의 수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닫고 서로를 이롭게 하며 우주의 이치를 알아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마음의 꽃을 피우며'를 주제의 조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대행 선사와의 인연,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법문, 신행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신행을 격려했다. 저녁에 진행된 촛불재에서 참가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푸르게 살라' 노래와 함께 이어진 의식 속에서 참가자들은 수행자의 삶을 다시 다짐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보물찾기 프로그램과 조별 신행담 발표, 선법가 배우기, 선원 조직 및 부서 소개, 주지 스님의 총평이 이어졌다.

불기협 회장에 윤호섭 BTN 차장



한국불교기자협회는 3월 9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윤호섭 BTN불교TV 보도국 차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내영 현대불교신문 차장, 부장단에는 총무부장 박성현 BTN불교TV 기자, 재무부장 이지윤 BTN불교TV 기자, 홍보부장에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가 선임됐다. 임은호 기자

'힙한 불교' 여행박람회서 만난다

3월 19~22일 코엑스 마곡
템플스테이 등 체험 부스
선재 스님 사찰음식 시연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개막일에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문화사업단은 '일상을 넘는 여행, 지역에 남는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전국의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현장에서는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포토존', '템플고시·사찰음식 퀴즈', '연꽃등·단주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이 템플스테이와 전통불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 개막일인 3월 19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가 진행된다. 이번 시연은 개막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되며, 시연에서는 봄철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의 의미와 조리과정을 현장에서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그리고 불교문화 체험을 한 자리에서 소개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안하고 전통불교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일본에 등장한 로봇 스님 '붓다로이드'

초기불교 경전 학습 AI 탑재
스님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처님 가르침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탑재하고 실제 스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도들을 맞이하는 로봇 스님 '붓다로이드'가 일본에 등장했다. 지난 2월 25일 일본의 'NHK 뉴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교토에서 공개된 인간형 로봇 승려 '붓다로이드'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일본 교토대 구마가이 세이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월 25일 교토에 소재한 사찰 쇼렌인(青蓮院)에서 공개발표 행사를 갖고 붓다로이드를 공개했다. 붓다로이드는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기체를 기반으로 한 인간형 로봇으로 초기불교 경전을 학습한 생성형 AI인 '붓다봇 플러스'가 탑재됐다. 이 AI는 지난 2023년 구마가이 교수팀이 개발한 것으로, 개발 당시에도 불교형 AI를 통한 사람들의 고민 상담과 조언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특히 탑재 AI 개발을 주도한 구마가이 교수가 불교학 전공자이자 정토진종의 스님이어서 타 AI에 비해 불교적인 내용이 더욱 정확하다는 강점도 있다. 이번 붓다로이드에 탑재된 AI는 최신 챗GPT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고민에 경전 문구를 인용해 답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기능을 갖췄다.

이날 공개 시연에서 사무에(事務衣)라고 하는 일본의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 붓다로이드는 스님들의 진중한 걸음걸이, 합장예배, 가부좌와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이어서 구마가이 교수가 로봇에게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자 붓다로이드는 탑재된 음성대화 기능을 통해 "상대와의 거리를 다시 살피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답한 뒤 합장했다.

시연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로봇은 실제 스님들이 해 줄 만한 응답을 내놨다. 한 기자의 "가지고픈 물건이 너무 많아 곤란하다"는 질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기존에도 다양한 종교 로봇이 개발된 바 있고 실제 사찰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유사한 전신 동작과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동시에 가능한 AI 인간형 로봇은 드물다. 연구팀은 장래적으로는 실제 법회나 기도법요에서 스님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개발해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마가이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출가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스님이 상주하지 않거나 폐사하는 곳도 늘고 있다. 붓다로이드는 기존 일본의 종교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구마가이 교수가 스님과 대화하는 붓다로이드를 보고 있다. 사진 출처=추니치 일보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2026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 사업명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 교육일정

장소	유형	교육일정	강사	인원
세종 광제사	당일	3월 20일(금)	향밀스님	20명
평택 수도사	1박 2일	3월 27(금)~28일(토)	적문스님	20명
수원 봉녕사	당일	4월 4일(토)	여거스님	20명
서울 진관사	당일	4월 7일(화)	법해스님	20명
대전 영선사	1박 2일	5월 2일(토)~3일(일)	법송스님	20명
대구 동화사	2박 3일	5월 10일(일)~12일(화)	혜범스님 형민스님	20명
장성 백양사(천진암)	1박 2일	7월 6일(월)~7일(화)	정관스님	20명

※ 상기 일정 및 참여 인원수는 변경 가능

● 교육대상 전국 사찰의 사찰음식 소임자(원주스님, 공양간 소임자 등) 및 템플스테이 실무자

● 교육내용 사찰음식 소임의 이해 및 스님이 알려주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레시피

● 신청기간
2026년 2월 26일 ~ 각 교육 정원(20명) 마감 전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wonseok@templestay.com)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 → 문의 및 안내 → 공지사항

● 참가비 무료

● 문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 02-2031-2051

● 안내사항
1) 정원 초과시 사찰별 참여인원 제한
2)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은 연 1회(1인 기준) 참여 가능
※ 중복신청 불가 ※ 사찰당 3명까지만 신청 가능
3) 교육시간 - 2박 3일형 : 5회 교육(2박 3일형은 템플스테이 사찰만 접수 가능)
- 1박 2일형 : 3회 교육
- 당일형 : 2회 교육
※ 1회당 3시간 교육 진행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통도사 불교대학 '1500명 입학'…전법 새 지평

매년 신입생 4년 연속 성장해
대학원 829명 수강 만족 입증
스마트 인프라 전법 한계 극복
기도비 전액 환원 선순환 실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 불교대학이 3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 '2026학년도 불교대학 및 대학원 입학식'에 1500여 명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운집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불교대학이 종교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성과를 일궈 냈다. 3월 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2026학년도 불교대학 및 대학원 입학식'은 1500여 명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운집한 가운데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통도사 불교대학(원) 입학생 및 수강생은 불교대학 1학년 421명, 2학년 250명, 대학원 829명으로 총 1500명을 기록했다. 2023년 1004명으로 '1000명 시대'를 연 이후 4년 연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 낸 포교의 결과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대학원 과정의 성장이다.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는 829명이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대거 심화 과정으로 유입됐다. '연속 수강' 현상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재등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날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 공부의 본질적 가치와 성찰을 강조하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영축총림 적멸도량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이 인연은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이라며 "부처님의 법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득되어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심은 깨달음의 씨앗이 수행의 이정표가 되어 스스로를 맑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으로 회향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국장 신경 스님은 '교육·기도·혁신'이라는 3대 포교 기치를 제시하며 운영 비전을 확장해 설명했다. 신경 스님은 "통도사 불교대학은 전통의 깊이를 지키되 현대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법 도량이 될 것"이라며 "실천하는 불교를 지향하며, 여러분이 내는 소중한 기도비 전액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계층 포교 기금으로 투명하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통도사만의 차별화된 '스마트 전법'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 강의실 대형 공간이 가진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사의 동선을 실시간 추적하는 AI 카메라와 85인치 고해상도 모니터 등 대대적인 인프라를 갖췄다. 시설 투자로 강의 집중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도 선행됐다.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출결 시스템과 아크릴 디지털 명찰 도입은 수강생들에게 전문 교육기관에 속해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었으며, 명찰 소지자에 대한 사찰 출입 편의 제공 등 세밀한 배려는 수강생들에게 출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통도사는 향후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및 VOD 서비스를 안착시켜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스마트 전법망'으로 교육 체계를 진화시킬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불자회, 김현길 12대 회장 취임

3월 11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제11 · 1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


김현길 제12대 부산경찰청불자회 회장이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불자회가 제11·12대 회장 이·취임 법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부산경찰청불자회는 3월 11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회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김현길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12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이날 법회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과 사무국장 석산 스님, 범어사 교무국장 효천 스님, 사상경찰서 경승실장 성문 스님 비롯해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명장을 전달받은 제12대 회장 김현길 회장은 포교와 복지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강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말못 할 고충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다"며 "불자회가 회원들에게 작은 위안과 쉼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명상과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비와 봉사의 정신이 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스님은 "해인사 주련에 적힌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即是)'라는 구절처럼, 극락이나 깨달음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그 치안의 현장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라며 "시민의 곁에서 자비의 화신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1998년 창립된 부산경찰청 불자회는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신행 단체다. 매월 정기 법회와 명상 수행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자비의 쌀 나눔과 부산연등축제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원 스님, 남해불교사암聯 회장 취임

3월 5일, 법흥사서 이 · 취임식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도



승원 스님(용문사 주지·사진)이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5일 쌍계사 남해포교당 법흥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과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 및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1부 남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부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승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포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원 스님은 "오늘 우리는 남해 불교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선대 스님들께서 다져 놓은 화합의 토대 위에서 남해 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와 신도회가 협력해 포교와 신행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 불자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남해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승민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남해군 불자들과 사찰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 준비를 진행했으며, 현재 보리암·용문사·화방사·법흥사·망운사·운대암·관음선원·낙가사·학림사·염불암·금왕사 등 11개 사찰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초대 회장에 취임한 하청두 회장은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지역 불교의 공익 활동과 각 사찰의 문화행사에도 동참해 화합과 친목을 넓혀 나가겠다"며 "임원진과 함께 남해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부산은행·국제신문, 공감기부 프로젝트

2015년부터 난치병 환우 지원
치료비 1억 4000만원 전달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3월 5일 국제신문 7층 사장실에서 부산은행, 국제신문과 함께 '공감기부 프로젝트 경과보고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승표 부본부장, 운영이사 현담 스님, 박동범 사무국장을 비롯해 위성옥 부산은행 사회공헌 홍보부장, 이현철 사회공헌팀장, 황문성 국제신문 발행인, 오상준 편집인 겸 총괄본부장, 최현진 편집국장, 임훈 독자여론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협력기관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는 지역민 복지 향상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신문, 부산은행,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5년 업무협약 이후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신문이 매월 난치병 환우 사연을 소개하고, 부산은행이 홈페이지 댓글 참여를 기반으로 기부금을 지원하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치료비 지원 대상 환우를 발굴해 병원에 치료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5년간 약 1억 4000만원의 치료비가 난치병 환우 지원에 사용됐다.

심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종교 간 벽이 높았지만 지금은 종교를 넘어 공감되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대가 됐다"며 "종교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금정불교대학, 2026학년도 입학식

3월 8일…신입생 660명



범어사금정불교대학(학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이 3월 8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열고 새 학기 출발을 알렸다.〈사진〉

이날 입학식에서는 학장 정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금정불교대학에는 전문과정, 경전과정, 전통문화과정 신입생 660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학장 정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진리를 찾는 길이며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며 "금정불교대학에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입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마가 스님, 8주 선명상 프로그램 개강

명상 지도 · 경전 공부 등



선명상을 바탕으로 한 8주 명상 프로그램 '내 인생을 꽃피우자'가 첫 수업을 시작하며 참가자들의 마음 성찰과 수행의 여정을 열었다.

마가 스님은 3월 5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교육장에서 성인 대상 명상 프로그램 '내 인생을 꽃피우자' 첫 회기를 진행했다.〈사진〉 프로그램은 주 1회, 회당 2시간씩 총 8주 과정으로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마가 스님을 비롯해 해피 스님과 천도 스님이 강사로 참여해 명상 지도와 경전 공부, 참여형 활동을 진행한다.

첫 강연을 맡은 마가 스님은 명상을 '자신을 비춰 보는 거울'에 비유하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명상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 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조계종 창종 30주년 기념 법회

대봉 스님 "희망의 등불 돼야"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봉 스님)은 3월 8일 문경 유스호스텔 성보천 대연회장에서 창종 3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사진〉

종정대행 겸 총무원장 대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30년은 종도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해 중생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원장 진묘 스님과 문화원장 보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행과 포교, 문화 활동을 통해 종단이 걸어온 노력과 의미를 되새겼으며, 봉행위원장 혜덕 스님은 봉행사에서 창종 30주년을 맞은 환희심을 전하고 종도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우곡사,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2월 26일, 의창구청서 전달식



창원 우곡사(주지 석산 스님)는 2월 26일 의창구청에 이웃 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성금은 우곡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창구 희망플러스 계좌'를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주지 석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나눔에 있다"며 "수행은 법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찰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우곡사 신도회장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10회 차시락의 밤' 연다

3월 21일, 경내 특설무대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은 3월 21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0회 차시락(茶詩樂)의 밤'을 개최한다.

'차시락의 밤'은 차(茶)와 시(詩), 음악(樂)이 어우러지는 산사 문화 행사로, 정관암이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해 온 행사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산사의 봄 정취 속에서 시 낭송과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음악인을 격려하기 위한 '제10회 울산연주인상' 시상식도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조 효심 용주사 천보루, 현대적 계승을”

3월 10일 보물 지정 기념 고유제 · 학술세미나

류성룡 · 김관수 등 주제 발제
변천사 살피며 활용방안 모색
성효 스님 “수행 공간으로 보존”

화성 용주사=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가 지난 2월 천보루가 보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법석을 열었다.

용주사는 3월 10일 고유제(告由祭)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조 대왕의 효심이 담긴 성보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 자원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앞서 대웅전 앞마당에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으로부터 보물 지정서를 전달받아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고유제가 봉행됐다. 성효 스님은 “천보루의 보물 지정은 정조 대왕의 지극한 효심이 현대에도 살아 숨 쉬는 유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경사를 부처님께 고함으로써 도량의 법향을 더욱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학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보루 보물 지정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시민과 불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효 스님은 ‘용주사의 천년 미래를 열다-천보루의 보물 지정과 기능적 계승, 그리고 도량의 완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천보루의 보물 지정은 용주사의 역사적 전통과 신앙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 성보가 앞으로도 수행과 성찰의 공간으로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성룡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조선의 18세기 건축과 정조 시대 용주사’를, 김관수 여유당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왕실 원찰 용주사의 창건기 공간 구성과 역사적 변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조선 18세기 사찰 건축의 정수로 평가받는 천보루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며 왕실 원찰로서 용주사가 지닌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축·미술·문화유산 보존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여해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선혜 교수(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리진흥부장·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주수완 교수(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조성금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원) △김학범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현승욱 교수(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이재연(화성특례시 학예연구사) △구본능 소장(단청기술연구소) △정성권 교수(단국대학교 초빙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전문위원) △박기화 위원(서울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이 참여해 천보루의 원형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3월 10일 천보루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고유제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유제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주지 성효스님에게 천보루 보물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천보루의 보물 지정은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26일 ‘화성 용주사 천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화성 용주사 천보루’는 대웅전의 중심축에 위치하는 건물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현 서울 동대문구)에서 수원 화산의 현륭원(顯隆園)으로 옮기고 명복을 기리기 위해 그 능침사찰로 용주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1790년(정조 4년) 건립됐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서울 나들이

3월 11일 이운법회 봉행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창 선운사 성보문화재가 대중을 만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11일 지장보궁에서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를 위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전통 불교 의례에 따라 시련, 향화청, 헌좌진언, 다게, 고불문, 반야심경, 행보게, 법성게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장엄한 의식 속에서 지장보살상이 안전하게 이운되기를 일심으로 염원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찬탄하며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스님은 “선운사 도량을 수호하며 중생의 발원과 기도를 받아 주신 지장보살님이 뜻깊은 인연으로 잠시 도량을 떠나 박물관에서 전국의 많은 대중과 친견하게 됐다”며 “지장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퍼져 보는 이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이운과 전시의 모든 과정이 장애 없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지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가 3월 11일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위한 금동지장보살좌상 이운법요식을 봉행했다.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은 “천년 고찰 선운사의 성보가 서울 나들이를 통해 대중과 만난다는 사실에 사부대중의 자부심이 크다” 며 “지장보살님의 지혜가 전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삶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운된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오랜 세월 고통받는 중생에게 희망을 전해 온 선운사의 핵심 성보다. 보살상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전시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가제)’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선운사 지장보살 좌상,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상, 도솔암 금동지장보살 좌상을 비롯해 석씨원류, 선운사 사적기, 선운사 대웅보전 신중도 등 다양한 성보가 선보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홍매화 첫 개화…봄 소식 알리다

‘화엄매’ 3월 6일 꽃망울
3월 20~30일 만개 예상



지리산 자락에 봄을 알리는 홍매화가 올해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사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인 ‘구례 화엄사 화엄매’가 3월 6일 오후 2시 무렵 첫 꽃을 피우며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해발 약 450m에 자리한 화엄사 홍매화는 매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매화 명소로 꼽힌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홍매화 첫 개화 시기는 2021년 2월 25일, 2022년 3월 13일, 2023년 3월 7일, 2024년 3월 9일, 2025년 3월 21일이다. 올해 개화일은 3월 6일로 지난해보다 16일 빠르다.

홍보기획위원회는 “홍매화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해 3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화엄사는 홍매화 개화 기간 동안 제6회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홍매화 빵 판매와 소원지 달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수익금은 구례 지역 자활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개화 상황은 화엄사 홈페이지 라이브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홍매화의 첫 꽃망울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메시지”라며 “많은 국민들이 구례 화엄사를 찾아 홍매화의 아름다움 속에서 힐링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제관음선센터 건립 천일기도 회향

무상사, 3월 7일 경내서
선방, 요사채 조성 예정



계룡산 무상사(주지 탄월 스님)가 3월 7일 국제관음선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이어 온 천일기도를 회향했다.〈사진〉

숭산국제선원 무상사는 관음선종의 아시아 본찰로, 26년 전 숭산 선사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수행자들이 이곳을 찾아 참선 수행에 동참해 왔다.

이번 천일기도는 국제관음선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시작됐다. 센터는 안거 수행자와 방문자, 단기 체류자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중 운영과 수행을 병행하는 상주 스님에 대한 지원과 무상사 설립과 수행 지도에 헌신해 온 조실 스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의미도 담겼다. 센터는 대웅전과 선방 뒤편 약 1만3000㎡ 부지에 연면적 1480㎡ 규모로 조성돼 선방과 숙소, 공양간, 조실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회향 법석에서 주지 탄월 스님은 “무상사는 세계 수행자들이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세워진 도량”이라며 “시설 확충을 위해 시작한 천일기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수행에 인연을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를 원만하게 회향하고 전 세계에서 참선 수행을 위해 온 이들과 서로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탄월 스님은 “세계 불자들이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어 자성을 찾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신년하례법회

3월 10일, 인천 보명사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회장 성철 스님, 이하 한불련)는 3월 10일 인천 보명사 대법당에서 ‘2026 병오년 종단 대표자 연석회의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회장 성철 스님을 비롯해 지부법인관리위원장 무공 스님, 종책원장 인경 스님, 최고위원 정오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표자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성철 스님은 법문에서 “병오년은 모두가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간 화합과 화쟁을 통해 함께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이루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국지부법인관리위원장 무공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처럼 신심불이(信心不二)의 지혜로 늘 깨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감사장 수여도 이어졌다.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장애인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이어 온 임병희(보륜) 불자가 감사장을 받았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1029일 정진 회향·입재

3월 8일, 극락보전 앞마당서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 스님)은 3월 8일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제8차 1029 합동천도재’ 회향식과 ‘제9차 1029 지장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2023년 5월 21일부터 1029일 동안 이어 온 정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행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솔암은 회향의 의미를 담아 장학금 300만원과 백미 20kg 41포를 광주자비신행회에 전달했다.

감원 성본 스님은 “지난 3년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깨끗해진 마음밭에 지혜와 복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며 “지장보살의 대원이 끝이 없듯 우리의 정진 또한 멈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각원사, 25기 불교대학 입학식

3월 8일, 173명 입학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학장 대원 스님)이 3월 8일 대웅보전에서 제25기 불교 기본교리 강좌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25기에는 주간 83명, 야간 90명 등 총 173명이 등록해 3개월 기본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학장 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전에는 서로 몰랐던 분들이 인연에 의해 만났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을 생각하면 이 만남이 바로 불도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삶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이후 과정에서도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안동 대원불교대학 제29기 입학식

3월 7일, 77명 입학



안동 대원불교대학(학장 도륜 스님)이 7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대원불교대학은 3월 7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학장 도륜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수행자”라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되길 바란다”고 입학을 축하했다.

77명의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 2학기 과정 동안 불교 기본 예절과 교리, 불교 사상과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신행 생활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대성사 대구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3월 6일, 100여 명 입학



대구 대성사(주지 월도 스님)가 3월 6일 서원전에서 ‘대구 금강불교대학 2026년도 제17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은 1973년 상원각대조사의 금강학원 설립 유지를 받들어, 1983년 서울 성룡사에서의 첫 개교 이래 이어져 온 천태종 교육의 전통을 대구 지역에서 계승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장 월도 스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만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며 “마음의 청정함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서 지혜를 구원하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동국대, 불교교육학 정립 '첫걸음'

조계종硏 – 동국대 불교교육硏
3월 6일 공동 학술대회 개최
'불교교육학' 정립 방향 제시
2학기부터 대학원 과정 신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교육연구소는 3월 6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교육학의 정립 및 미래세대 포교 실천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기념촬영 모습.

미래세대에게 불교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전문 학문인 '불교교육학'의 정립을 위해 조계종과 동국대가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교육연구소(소장 장환영)는 3월 6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교육학의 정립 및 미래세대 포교 실천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 포교의 교육적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단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해 학교교육, 청년 전법, 명상 교육, 인공지능 환경 등 현대 사회의 교육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장환영 불교교육연구소장은 '불교교육학 정립과 실천'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교육학 정립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교육학이 불교에 접목됐을 경우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불교 미래세대와 사회 리더들을 양성해 불교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음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불교교육학은 실천성과 현장성을 담보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를 통한 청년세대에 접근이 용이하다"면서 "불교교육학이 이론불교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교육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중화 △과학화 △국제화 △디지털화를 꼽았다. 체계적 교육과정과 방법 개발을 통해 쉽게 불교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불교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소장은 구체적인 불교교육학 발전 계획도 제시했다. 총 6년 동안 △탐색기 △성장기 △확립기를 통해 불교교육학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고 전문 학과 및 학회를 설립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장 소장의 계획이다.

장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교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정립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더불어 전법과 불교 가치 확산을 위해 불교교육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불교교육학 협동 과정을 신설할 계획임을 전했다. 신인수 불교교육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동국대 일반대학원 내에 불교교육학과 협동과정이 신설된다. 세부 전공은 불교교육학 전공, 인성 및 마음교육 전공, AI·디지털 인재 개발 전공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님의 침묵', 韓정신사 정점"

윤재웅 총장, '님의 침묵 10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

공동체 정신 회복 통한
화합 구현이 작품 의의


윤재웅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문화학술원 만해연구소와 국어교육콘텐츠연구소는 3월 6~7일 1박 2일 동안 동국대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문화의 새로운 지평: 아카이브와 AI 구축, 세계인 만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국대 건학 120주년과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윤 총장은 "〈님의 침묵〉은 20세기 한국 정신사의 정점"이라고 평가하며 "이 시집에 나타난 자유·평등·평화 사상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님의 침묵〉이 마음속에 중생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함께 있다는 화엄 사상의 '진망화합식'이 일상 국어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윤 총장은 "〈님의 침묵〉에 담긴 사유는 불교의 화엄 사상에 기반한 세계관으로 모든 이별과 만남의 사건들은 화엄의 바다에 일어난 거품에 불과하다는 큰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룻배와 행인'을 상기한 윤 총장은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를 향한 행동과 실천이 만해 시의 본질"이라며 "만해 스님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룻배이며 행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종결하고 화합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 지니는 의의이자 만해 스님의 사상이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잘 분별해야 평등과 연민을 구현한다

㉝ 무분별 선분별(無分別 善分別)

無分別 善分別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분별심 내지 말라는 말을 불자들은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 말은 자칫 듣는 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거나 불의 앞에서 침묵하게 만들고, 나아가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음험한 속셈을 감춘 채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무분별과 선분별의 개념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분별하지 말라는 무분별(無分別)은 모든 존재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공성(空性)의 통찰, 곧 십바라밀 가운데 여섯 번째인 반야바라밀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 사물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선분별(善分別)은 여러 조건이 작용해 발생한 연기적 현상의 특징과 역할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지혜로, 십바라밀의 열 번째인 지혜바라밀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무분별과 선분별은 우리 앞에 펼쳐진 동일한 현상을 공성과 연기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통찰하는 데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거짓과 거친 언행 때문에 불신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과 배려의 태도로 신뢰를 얻는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분별이다. 그러나 불신받는 사람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고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무분별이다.

〈화엄경〉 '십지품'에는 "모든 법이 차별 없는 모습임을 알면서도 능히 (지금 여기) 각각의 모습을 잘 분별한다(知一切法 無差別相 而善能分別 一切諸法)"라고 한다. 또 '야마천궁보살설게품'에서는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서로 조금도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말한다.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 번뇌와 악습에 따라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되고,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완성하면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중생과 부처는 서로 다르면서도 또한 다르지 않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차별 속에서 차별 없음을 보고, 차별 없음 속에서 다시 차별을 보아야 한다. 이웃의 어려움이 생긴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방편바라밀이라 한다. 그러므로 무분별을 맥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선분별이 중요하다.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과 연민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화순 불암사 주지〉

동아시아 호국불교 어떻게 형성됐나

동국대불문연 HK+사업단
3월 20일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승가에서 호국불교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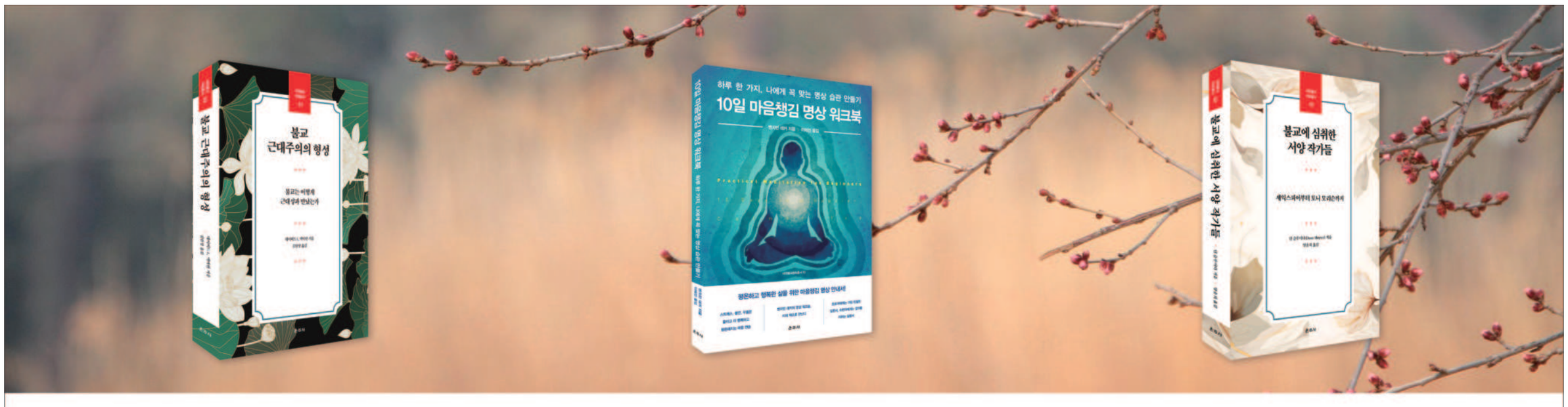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3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와 국가: 동아시아 승가와 호국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불교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호국관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불교사적 의의'를, 조나단 칼 포이어 홍콩대 박사 후 연구과정은 '한국 불교 군종 제도: 폭력인가'를, 간 친신 중국 서남교통대 인문대학 교수는 '일제강점기 대만 혁명승 임추오의 한국불교사 인식과 호국불교론'을 각각 발표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은 '무장한 자비: 일본 중세에서 승군지장의 탄생'을, 오가와 히로카즈 일본 오타니대 강사는 '19세기 말 일본불교의 호국관과 조선불교 구제 담론의 형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 19일 오후 4시에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고전 텍스트 강연'이 동국대 만해관 256호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오가와 히로카즈 일본 오타니대 강사가 맡았으며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 불교 문헌(에도~메이지시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현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
불교 근대주의의 형성
흔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는 불교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근대의 서구철학, 과학, 심리학 등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데이비드 L. 맥마한 지음, 김한상 옮김/신국판/524쪽/값 32,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미술사 쉽게 알고 싶다면 석굴이 찾아주세요”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 석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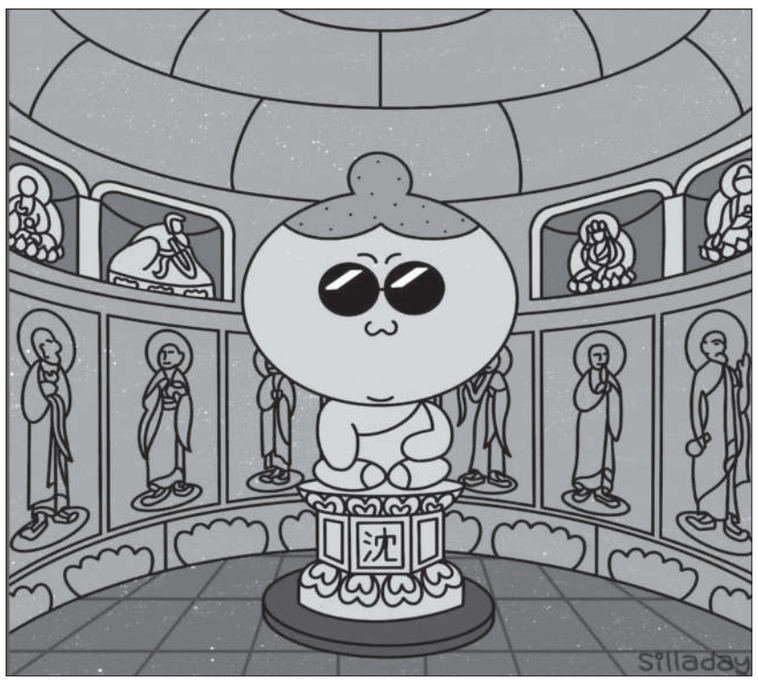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굴암 본존불은 주실에 근엄하게 앉아 있다. 하지만 그 뒷면을 본 적이 있는가. 앞면보다는 단순하게 조성돼 있는데 이유는 “어차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앞모습에 집중하고 뒷모습을 생략하는 점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불교미술사의 깨알 같은 지식과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상식들을 전하는 불교 크리에이터가 있다.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석굴이’(instagram.com/silladay)다. 3월 12일 현재 62개의 게시물이 업로드된 혜성 같이 등장한 신인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들은 체계적이고 단단하다.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툰 형식으로 이야기와 정보를 전하고 있다.

3월 7일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석굴이(본명 심희진) 작가는 “불교조각으로 미술사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미술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행력이 좋은 편이라 바로 캐릭터 제작에 들어갔고 ‘석굴이’가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생은 불교미술사학도
부캐는 인스타 ‘석굴이’
전공 연계 고민하던 중
크리에이터 도전 결심해
“韓미술사 쉽게 전할 것”



석굴이 작가의 석사학위 논문은 ‘삼국 시대 반가사유상 좌구 연구’로 반가사유상 좌구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상의 구조와 의미적인 면에서 조명했다. MZ세대 미술사학도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인스타툰’을 제작하니 시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었다. 최근 업로드한 석굴암 본존불 뒷모습, 진관사 태극기 콘텐츠 등은 4000~5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두 플랫폼의 팔로워 수는 1300~1400여 명에 이른다.

석굴이 작가는 “최근 진관사 태극기 관련 인스타툰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좀 얼떨떨했다”며 “사실 인스타툰은 ‘될 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공은 반가사유상인데, 부캐 디자인을 왜 석굴암 본존불로 했냐”는 질문에 석굴이 작가는 “캐릭터의 행동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가사유상은 그 자체가 형식이어서 사유수인을 취하고 있다. 저는 캐릭터가 자유롭게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사유수인을 하지 않으면 반가사유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무슨 자세를 해도 무방한 석굴암 본존불을 모티프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는 전공 지식과 일상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주 보는 전공 서적, 친구와의 대화, 지나가다 보이는 물건 등 일단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바로 메모해 놓는다”며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제목과 콘티를 먼저 만들고 이야기 흐름이 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문장을 여러 번 수정한다. 그림은 마지막에 그리는데, 콘티를 짜며 이미 생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빠르게 그려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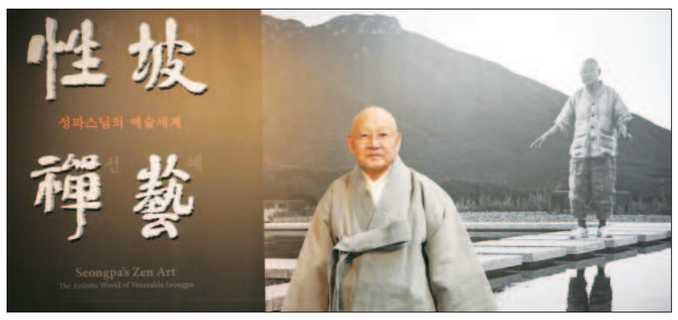
그림들의 퀄리티가 좋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냐” 묻자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으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유튜브 등을 보면서 태블릿 등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혔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때 그때 검색해서 배우고 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굴이 작가는 콘텐츠들을 쌓아 책을 만들고 관련 굿즈를 제작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들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굴이 작가는 “계정 운영이 반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재는 콘텐츠의 기본적 틀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애초 생각했던 미술사 기초 라인업을 세우고, 주요 내용인 불교미술사를 우리나라 미술사 전반과 함께 다루려 한다. 현재로 여러 시행착오를 하는 중이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석굴이 캐릭터를 살리고 그 속에 미술사 콘텐츠를 같이 담아낸 굿즈와 도서를 제작하고 싶다”면서 “무엇보다 제가 올린 콘텐츠를 계기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파 대종사 수행·예술, 강의로 만난다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
‘성파선예’展 연계 강의
5월 7일엔 스님과 대화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2월 9일 열린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기자정담회에 앞서 진행된 라운딩에서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수행과 예술 세계를 강의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박본수)은 “3월 12일부터 ‘2026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인문학 강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인문학 강좌)은 매년 역사·문화와 관련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현재 전시 중인 특별전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와 연계해 열린다.

‘성파 스님의 수행과 예술 –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수행과 창작, 미술 재료의 탐구, 참선과 다도, 전시 공간과 작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3월과 4월에 각각 2회씩 열리는 특강에는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 기자의 ‘성파 스님의 수행과 창작: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3월 12일) △정종미 한국화가의 ‘성파, 통도 그리고 우리 그림’(3월 26일)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의 ‘성파 스님의 다락방’(4월 9일)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감독의 ‘성파선예관 건축과 개관전을 준비하며’(4월 23일)가 진행된다. 5월 7일에는 금강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성파 스님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강좌는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달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무료다. 접수는 온라인(지지씨멤버스)과 오프라인(전화·방문·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기차로 만나는 호남선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 코레일관광개발
‘봄맞이 테마 기차여행’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2026년 봄맞이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을 운영한다.

문화사업단과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특별열차를 타고 떠나는 봄맞이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각 지역의 전통시장, 관광지와 연계해 3월 29일 호남선 코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4월 12일 중앙선 코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3월 29일 호남선을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반야사(충북 영동), 신안사(충남 금산), 지장정사(충남 논산), 무량사(충남 부여), 내소사(전북 부안), 선운사(전북 고창) 등 총 6개 사찰을 연계·진행한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도 계절별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쉼표를 찾아 쉬어 갈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WISE캠, ‘인도 교류 사진전’

3월 20일까지 갤러리백상서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인도 문화교류 학술탐방 사진전’을 개막했다.〈사진〉

이번 전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인도 문화교류 학술탐방’의 성과를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델리, 바라나시,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등 불교 성지 순례와 현지 학교에서 펼친 한국문화 소개 및 봉사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과 영상 3편이 소개된다.

류완하 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사진전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건학이념을 직접 실천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은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 2층 갤러리백상에서 3월 20일까지 열린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승가 ‘다비’·재가 ‘49재’, 보험으로 정착 기여할 터”

佛子 CEO Interview

박채원 (주)선우HK 대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채원 선우HK 대표가 조계사 극락전 앞에서 합장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박 대표는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 보험상품을 개발 · 보급하여 전법포교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 대원각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는 모습.



장성 백양사 포살법회서 ‘다비보험’ 홍보활동과 접수하는 스님들의 모습.

“실질적 복지와 전통 계승의 조화, 포교하는 경영인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건너가는 과정이다. 49재와 다비는 고인을 위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수행의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례와 49재는 남겨진 가족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험’이라는 현대적 방편으로 풀어낸 인물이 있다.

흥국생명과 협력해 ‘49재 제례종신보험’과 ‘해탈다비보험’을 보급하고 있는 ㈜선우HK 박채원 대표다. 그녀를 만나 그가 그리는 불교 장례문화의 미래를 들었다.

제사는 갈등 아닌 효도의 기쁨
원력(願力)으로 현대적 방편의 꽃 피우다

제례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제사’가 가족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의 불씨가 되어가는 현실에 주목했다. 명절과 기일마다 반복되는 준비의 고단함, 비용 분담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으로 고민이 시간되는 순간, 효도라는 본연의 의미는 빛을 잃는다.

박 대표는 여기에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제사가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부담없이 가족이 모이는 장이되면 그때야 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

그녀가 제안한 ‘49재 제례종신보험’은 생전에 준비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사찰과 연계해 전문적인 의례를 지원받도록 하여, 자녀들이 절차와 비용 걱정 대신 고인을 향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두는 것이지요.”

그녀는 이를 ‘가족 화합을 돕는 공덕’이라 표현했다.

한 사람의 준비가 남은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사찰의 전통 의례를 지탱하며, 수행 문화의 맥을 잇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살아 있는 공덕이라는 믿음이다.

봉은사 염불 소리서 찾은 평온! ‘진짜 불자’로

박채원 대표에게 불교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어머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세월 신행에 힘써왔고, 어느날 큰 병을 얻은 뒤 오대산 월정사에서 5년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 시간속에서 어머니는 서원을 세웠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49재보험’과 ‘다비보험’을 구상했다. 딸인 박 대표에게 이 원력을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냉혹했다.

“평생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제게 보험 영업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스님들을 뵙는 것조차 낯설어 당황하기 일쑤였고, 본사의 실적 압박은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이었죠.”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자, 원망의 화살은 어머니를 향했다. 한 집에서도 며칠씩 말을 섞지 않을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절망 섞인 눈물을 쏟아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시기를 “마음이 얼어붙은 겨울”이라고 회상한다.

어둠 같던 터널을 지나게 해준 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불교’였다. 지난해 가을, 서울 봉은사 법왕루 아래 홍보 부스를 차리고 3개월간 매일 신도들을 만났던 경험이 전환점이 되었다.

“가을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스님들의 염불 소리를 매일 귀에 담았습니다.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고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영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을 아름답게 갈무리해 주는 ‘공덕의 길’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 “생전 본인의 49재를 미리 다니던 사찰에 보험을 통해 예탁해 놓는 것은 부모 · 자식간 종교가 다른 가정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박 대표는 이 시기 〈금강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눈에 보이는 실적, 타인의 평가, 스스로 만든 기대 역시 하나의 ‘상(相)’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처럼 붙들고 있었지만, 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자각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말을 글로는 많이 읽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더군요.”

이후 통도사, 월정사, 범어사, 백양사 등 유명사찰을 돌며 전국의 선지식들을 친견하고 얻은 가르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우리 같은 이른바 날나리 불자가 종정스님이나 총무원장스님 같은 큰스님들을 뵙게 된 것만으로도 이 사업의 보람”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하는 ‘진짜 불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계종 및 전국선원수좌회등과 업무협약

진심은 결국 통했다. 지난해 6월 대한불교조계종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어 12월에는 전국선원수좌회와도 손을 잡았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과 수행자 그룹으로부터 상품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수행에만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전통 다비 문화를 올바르게 전승하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박 대표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정직’과 ‘인내’를 약속하며 인터뷰를 끝맺었다. 제사와 장례가 가족의 숙제가 아닌 ‘기쁜 추모’가 되고, 사찰 경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처음 마음먹었던 초심 그대로, 가입자와 사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1~3/1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다 막힐 때 한 줄 해결사	동은	조계종출판사
2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3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민족사
4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조계종출판사
5	연꽃법화경(양장본)	원순	법공양
6	보살계본 범망경	심재열	보성문화사
7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8	대방광불화엄경강설-1	여천무비	담앤북스
9	법화경 강의(상)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10	가야산의 메아리(영문판)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숲에서 답을 얻다	홍성범	중도
2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운주사
3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5	불발 부처님 발우이야기	권오민	운주사
6	요가 호흡 디피카	아헹가/문진희,현천	선요가
7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8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마하시사야도의 위빳사나 수행방법론(1)	일창 담마간다 옮김	불방일
10	논 알코올 티 믹솔로지 (NON ALCOHOLIC TEA MIXOLOGY)	강미희,김선정,김수연,김종분,박정숙 외	차와문화

불교 세계관 알면 사찰이 보인다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체계

자현 스님 지음
김재일 그림
불광출판사 / 2만2000원

만화로 새 단장한 불교문화 입문서

상징 체계로 읽는 사찰 · 문화유산

쉬운 설명과 시각 자료로 '이해 쏙'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은 사찰이다. 전각의 배치, 탑의 위치, 문양과 조각, 다리와 문 하나까지도 모두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지만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찰은 그저 '좋은 풍경'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현 스님의 〈사찰의 상징세계〉(2012)는 사찰 건축과 불교문화 속에 숨은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내며 불교문화 입문서로 큰 호응을 얻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이 책이 만화로 새롭게 태어났다.

어린이책을 기획·디자인하는 김재일 작가가 만화 구성과 그림을 맡아 원작의 깊이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가장 큰 미덕은 사찰을 '불교의 상징 체계'로 읽어 내는 시선이다. 저자에 따르면 사찰의 가람배치는 불교 우주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가람의 밑그림에는 '수미산 우주론'이 자리하며, 사찰의 중심에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을 상징하듯 부처님이 모셔진다.

이 같은 시각을 이해하는 순간, 사찰은 불교 세계관을 담은 하나의 우주로 읽히기 시작한다. 사찰 앞에 흐르는 냇물은 '번뇌를 씻고 들어오라'는 상징을 품고 있고, 위에 놓인 다리는 번뇌의 세계인 차안(此岸)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담는다.

탑과 불상, 불화에 담긴 의미도 흥미롭게 풀어낸다. 중국은 황토 평야가 많아 벽돌탑이, 우리나라는 돌이 풍부해 석탑이 주류가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건축 재료의 차이가 문화적 형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또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 상징이나 삼천대천세계의 우주관 같은 교리적 내용도 어렵지 않게 풀어낸다. 삼천대천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천 개 모여 소천세계가 되고, 그것이 다시 천 개 모여 중천세계가 되며, 다시 천 개가 모여 대천세계를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이 거대한 우주가 한 부처가 교화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은 불교의 스케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처럼 책은 사찰 곳곳을 거닐며 불교의 역사와 철학, 미술과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설명은 만화 형식 덕분에 한결 경쾌해졌다. 등장인물의 대화와 질문, 상황 설정이 이어지면서 독자는 설명을 '읽는다'기보다 사찰을 함께 탐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풍부한 시각 자료도 책의 장점이다. 사찰의 구조와 전각, 불화와 유물 등을 보여 주는 125장의 사진이 수록돼 생생함을 더한다.

'힙불교' 열풍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교리의 문턱 때문이다. 그러나 사찰의 풍경 속 상징을 읽는 순간 불교는 더 이상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일상 속 문화로 다가온다. 탑과 전각, 기와 문양과 조각 하나까지도 불교의 사유가 응축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찰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언어를 읽어 내도록 돕는 이 책은 불교 입문자와 청소년은 물론, 사찰을 자주 찾는 불자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건네는 교양서가 될 것이다.

2000년을 건너온 삶의 지혜



판차탄트라

배해수 엮음
지혜의나무
3만8000원

다섯 묶음의 고대 인도 우화집

현대에도 유효한 삶의 지혜 담아

인간의 삶을 비추는 가장 오래된 거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화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관계, 선택과 결과를 비춰 주는 우화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전해져 왔다.

〈판차탄트라〉는 우화 전통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고대 인도의 고전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스크리트어로 '판차(Pancha)'는 다섯을, '탄트라(Tantra)'는 지혜를 확장하는 방법이나 원리를 뜻한다. 이름 그대로 '다섯 묶음의 지혜로운 이야기'라는 의미다.

전승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브라만 학자 비슈누샤르마가 왕의 세 왕자를 교육하기 위해 들려 준 우화에서 비롯됐다. 학문적 교리를 직접 설명하는 대신, 동물과 인간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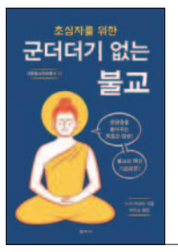
우화들은 인간 사회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의리,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 피어나는 우정, 갈등과 전쟁 속에서 얻는 교훈, 이익과 손해의 계산, 경솔함이 부르는 실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국면이 다섯 개의 이야기 묶음 속에 담겨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액자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 한 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이룬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때로는 슬기롭고, 때로는 교활하며, 때로는 약삭빠른 선택을 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혜로, 다른 상황에서는 술책으로 읽힐 수 있다.

책을 엮은 배해수 씨는 산스크리트어 원본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되, 대화체 중심의 문장으로 각 이야기를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낯선 고어와 장황한 호칭은 덜어 냈다. 이야기의 형식은 동화처럼 친숙하지만, 행간에 담긴 질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신뢰와 이익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저자는 "어른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 주는 동화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핵심 가르침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
운주사 / 1만5000원

팟캐스트 진행자의 불교 안내서

붓다 생애 · 가르침 · 수행 설명

저자는 개인적 시련 속에 불교를 처음 만났다. 명상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지만, 삶의 고통을 없애는 '비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를 깊이 파고들었고, 이후 명상 모임과 '세속 불교(Secular Buddhism)'라는 팟캐스트 등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는 그가 명상 모임을 지도하고 강연을 하며 수없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한 책이다.

1부 '붓다'에서는 역사적 인물로서 고타마 싯다르타의 삶을 다룬다. 왕자로 태어나 수행자가 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불교의 핵심 개념을 소개한다. 고, 무상, 공, 업, 윤회와 깨달음 등 불교의 기본 개념들이 어렵지 않은 언어로 정리되어 있다. 3부에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 오온 등의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 장은 수행의 영역이다. 계율과 명상, 염불 등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알려 준다.

불교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독자라면 책 말미에 담긴 추천 자료를 찾아보길 권한다. 여수령 기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260자



정견 스님의 반야심경 법문

정견 스님 지음
통섭불교원
3만8000원

정견 스님의 2년 강설 엮어

"나와 대상 이해하는 가르침"

정견 스님이 2007년부터 2년 동안 제천 제불선원에서 〈반야심경〉을 강설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정견 스님은 "교학으로는 신라 시대 유식학의 대가이신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와 선학으로는 송나라 대원 선사의 〈심경주해〉를 참고해 하나의 대강(大綱)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 34강으로 먼저 경전의 이름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에 담긴 뜻을 설명한 후,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풀이한다.

스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반야심경〉의 대의"라며 "〈반야심경〉을 배운다는 것은 세계를 보는 나와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리를 터득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책을 엮은 사단법인 통섭불교원의 김성규 원장은 "강의를 통해 불교를 알게 하고, 견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견성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정견 스님의 불은(佛恩)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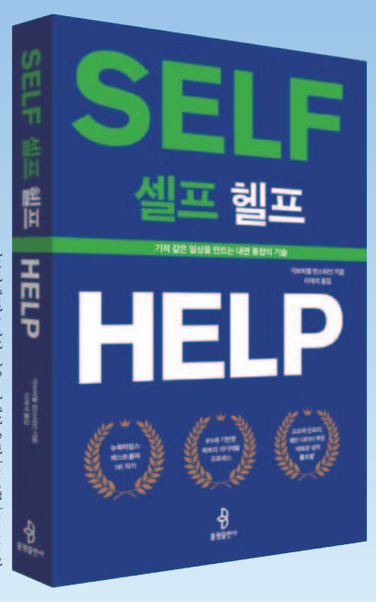
인생,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제는 될놈안이다(될 놈은 안을 들여다본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의 신간
IFS에 기반한 최초의 자기계발 프로세스
웨인 다이어 · 오프라 윈프리 · 포브스 추천 영적 롤모델

"나는 왜 늘 제자리걸음일까?"

반복되는 작심삼일에 지친 사람
내 안의 불안, 분노, 우울을 다스리고 싶은 사람
진짜 나(Self)를 되찾아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사람

당신의 결심을 실현시켜 줄
'4단계 내면 점검 과정'



가브리엘 번스타인 지음, 이세석 옮김 | 306쪽 | 20,000원

SELF
셀프 헬프
HELP

기적 같은 일상을 만드는
내면 통합의 기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혁신적인 이론인 내면가족체계[IFS]에 기초해
내 안에 깃든 '힘'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방법



★★★ "이 책으로 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다!" - 리처드 슈워츠 박사
★★★ "가브리엘은 보물이다. 그녀의 작업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 웨인 다이어
★★★ "그녀는 새로운 사상의 리더다." - 오프라 윈프리
★★★ "아직도 그녀의 책을 보지 않았다면, 걷지 말고 뛰어가라." - 제시카 알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율 통해 지켜진 붓다 가르침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③ 계율을 제정한 이유

n’ etaṃ bhikkhave appasannānaṃ vā pasādāya pasannānaṃ vā bhiyyobhāvāya, atha kho taṃ bhikkhave appasannānañ c’ eva appasādāya, pasannānañ ca ekaccānaṃ aññathattāyā’ti.

汝所爲非, 非威儀, 非沙門法, 非淨行, 非隨順行, 所不應爲.

비구들이여,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청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더 청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 여법하지 못한 비구들을 향한 붓다의 경책 –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불교와 승가 유지 위한 율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계와 율이 승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는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불교가 생겨난 당시 인도 사회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인도 문화와 사회의 근본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베다 사상 속에서 베다 문헌을 부정하며 다양한 자유사상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대였다.

당시 인도 사회는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가르침과 윤리적 교리를 설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다. 붓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외에도 불교와 승가 구성원을 위해 율을 남기게 된다. 붓다의 율 조문 제정은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규칙을 의미하는 율이 불교에서만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붓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율 조문의 제정은 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비구니의 행동을 통제하며, 범계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동반하고 있다. 처벌을 동반하는 율은 승가 구성원들을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가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 시대 속에서 불교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존속되도록, 구성원의 처벌 규정인 율을 제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율을 통해서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과 자비의 정신이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 비판 시대 분위기서 제정

붓다가 율을 제정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우루벨라 지역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는 이후 바라나시에서 5비구 제도를 시작으로 가섭 3형제, 산자야의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 등 많은 이들을 교화했다. 삼십 대 중반에 성도한 젊은 붓다는 제자가 천 명이 넘고, 노련한 대종교인인 가섭 3형제를 교화했는데, 이 일은 우루벨라 지역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리고 산자야 교단의 큰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의 교화를 통해 불교가 더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바탕이 됐다. 붓다가야에서 성도한 젊은 붓다는 젊은 나이에 많은 이들을 교화했다.

젊은 붓다의 등장으로 인해 불교는 급성장과 함께 세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산자야 교단의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의 교화는 상대적으로 불교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붓다의 등장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수행을 위해 출가를 했고, 집안의 가장들 또한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게 되면서, 불교를 향한 원망과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대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도 사상가들은 불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많은 공작과 모함을 하게 됐다.

붓다의 율 조문 제정, 타 종교와 차이점
수행·승가·사회, 불법 유지 위해 율 수립
제계십리서 율 제정 이유 열 가지 설명
바른 수행자 바라는 붓다 가르침 담겨

삼십대 중반의 젊은 수행자인 붓다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붓다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와 공격·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젊은 붓다는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붓다는 자신의 제자를 징계해 다양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붓다는 율을 제정했지만, 첫 율 조문을 제정하기 전까지 붓다는 율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붓다는 율 조문의 제정이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엄격한 계율 준수를 강요하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성취보다는 계율 엄수주의로 빠지는 것을 주의했을 것이다. 또한 형식화된 출가자의 생활과 지나친 도덕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다.

제계십리서 조문 제정 이유 밝혀

율 조문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진 붓다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아마도 승가 구성원들의 범계 행위와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붓다는 율 제정에 앞서 ‘제계십리’라고 불리는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조문 제정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다.

tena hi bhikkhave bhikkhūnaṃ sikkhāpadaṃ paññapessāmi dasa atthavase paṭicca : saṃghasuṭṭhutāya saṃghaphāsutāya dummaṅkūnaṃ puggalānaṃ niggahāya pesalānaṃ bhikkhūnaṃ phāsuvihārāya diṭṭhadhammikānaṃ āsavānaṃ saṃvarāya, samparāyikānaṃ āsavānaṃ paṭighātāya, appasannānaṃ pasādāya pasannānaṃ bhiyyobhāvāya, saddhammaṭṭhitiyā vinayānuggahāya.

諸比丘結戒 集十句義 一攝取於僧 二令僧歡喜 三令僧安樂 四令未信者信 五已信者令增長 六難調者令調順 七慚愧者得安樂 八斷現在有漏 九斷未來有漏 十正法得久住 欲說戒者當如是說.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열 가지 이익에 근거하여 비구들을 위해 학처를 제정하겠노라. 승가의 선성(善性)을 위해서, 승가의 안락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조복하기 위해서, 훌륭한 비구들의 안락한 거주를 위해서,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래의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신심을 보다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 정법의 구주(久住)를 위해서, 율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이다.

붓다는 제계십리에서 수행과 승가, 사회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불법이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율을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열 가지 이유 중에서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래의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율 엄수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수행을 통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법이다.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신심을 보다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재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출가한 비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번뇌나 탐욕을 던져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신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신심을 보다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범행(梵行)을 행하며 율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신심이 증장되기 때문이다.

젊은 붓다는 당시 사회의 상황에 의해 질투와 시기로 인해 비난과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재가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승가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며, 재가자들로 하여금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율을 제정했다.

그런 까닭에 승가는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계십리의 내용은 승가의 구성원 스스로가 번뇌 극복과 범행을 통해 바른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승가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 이 사회 속에서 살아오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계십리는 다양한 종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불교를 선택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유를 보여 준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그대는 자비보살

부산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수좌에서 마을 스님으로…원오사에 피어난 자비

은사 당부에 수좌에서 주지로
아이 꿈 품고 소외 이웃 돌봐
10년째 '희망복돼지' 나눔 이어
문턱 낮춘 불사로 '모두의 도량'
마을을 수행공동체로 잇는 원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이 경내 포대화상과 나란히 섰다. 1997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명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비구계 수지 후 봉암사, 남국선원, 벽송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14안거를 성만했다. 2008년 원오사 주지 취임 이후 (재)명정장학재단 이사장과 명정지역아동센터 대표를 맡아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보살핌을 이어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해운대 애향대상을 비롯해 해운대구청장 봉사상, 부산경찰청장 표창, 해운대경찰서장 봉사상 등을 받았다.

"공부하는 수좌에게 주지를 살라고 하려니 미안하긴 한데…."

선방에서 수좌로 참선 수행만 7년. 갑자기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은사인 통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이 병환으로 입원하며 남긴 당부를 차마 물리칠 수 없었다.

2008년, 수좌 정관 스님은 부산 반송에 자리한 원오사를 찾았다. 산자락을 다듬어 지은 법당과 낡은 요사채가 스님을 맞았다. 어르신들은 가파른 경사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고, 젊은 신도들도 다리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렸다.

"누구나 편히 찾는 사찰이면 좋겠습니다."

열린 부처님 도량이자 마을의 보금자리가 되기까지 19년이 걸렸다. 원오사는 이제 법당까지 곧장 오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공양간, 요사채, 지장전을 갖춘 도량이 됐다. 뒷산에는 차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해 누구나 여유롭게 걷고 쉬어 갈 수 있다.

산중 수좌에서 마을 수행자가 된 스님은 암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 온기를 전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2월 24일 원오사에서 만난 정관 스님의 넉넉한 웃음과 넓은 품은 어느새 포대화상을 닮아 있었다.

아이들 허기 채우는 '안심 도량'

정관 스님이 원오사에서 마주한 것은 산자락보다 더 가파른 아이들의 절망이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다. 스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주지실과 차실을 내어 주었다.

처음 사찰을 찾은 아이들은 거칠고 불안했다. 단 5분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비틀던 아이들에게 스님은 설법 대신 따뜻한 고봉밥을 내밀었다. 가정의 해체와 빈곤으로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산처럼 쌓인 밥은 '안심(安心)'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니 그저 '보통 사람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참 마음 아팠어요. 어떤 아이는 그간의 허기를 채우듯 밥을 고봉으로 쌓아 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한 6개월을 따뜻한 밥을 먹이니 그제야 아이의 눈빛이 안정을 찾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차 한잔을 나누니 비로소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찻잔을 손에 쥔 아이들은 점차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사찰에서 시작한 다도와 미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정서적 보루가 됐고, 무뚝뚝했던 아이를 당당한 사회인으로 키워 내는 촉매가 됐다.

'희망복돼지'로 전하는 온기

자비의 물결은 사찰을 넘어 마을의 가장 낮고 소외된 곳, 말기 암 환자들의 방으로 흘러갔다. 정관 스님이 호스피스 현장에서 목격한 '소외된 죽음'은 10년째 이어 오고 있는 '희망복돼지' 나눔의 씨앗이 됐다. 신도들이 "모든 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발원하며 모은 원력은 어느새 후원자 2000여 명, 총 후원액 1억 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복전(福田)을 이뤘다.

"말기 암 환자들은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한두 시간씩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택시 타고 다니시라'며 교통비를 드리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소고깃국을 끓여 드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며 사양하는 분도 계신데, 그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 아닐까요."

가파른 문턱 낮춘 '열린 도량'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 주며 '마을로 찾아가는 법당'을 일군 스님은 또 다른 불사를 계획했다. 바로 도량의 가파른 문턱을 낮추는 것.

원오사는 입구에서 대웅전 마당까지 아파트 8층 높이의 가파른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쌀을 이고 법당을 오르는 노보살들의 가쁜 숨과 굽은 허리가 화두가 됐다.

"가파른 계단을 쌀이며 과일을 이고 힘겹게 오르는 어르신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와서도 자리가 없어 천막 아래 젖은 바닥에서 공양을 드셔야 했지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도량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자 자비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스님에게 중창 불사는 중생의 고단한 무릎을 어루만지고, 도량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실천적 수행이었다.

2022년 기공식을 거쳐 2023년 문을 연 명상문화센터는 척박한 지형을 자비의 공학으로 극복한 결과물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워진 센터의 핵심은 공간의 유기적 연결에 있다.

가장 파격적인 설계는 엘리베이터와 대웅전을 잇는 '구름다리'다. 이제 신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려, 구름다리를 통해 곧장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설 수 있다. 넉넉해진 공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명상실이 들어섰고, 주민들은 언제든 들러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공간이 바뀌니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오르던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을 향한 환희심이 채워졌지요. 도심 사찰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숨쉬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문턱을 없애니 비로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워 우리를 채우다

인터뷰를 마치며 스님은 '진공묘유(眞空妙有)'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起心)'의 가르침을 전했다. 30년 가까운 출가 생활에 그 뜻이 더욱 가슴에 새겨진다는 스님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맑은 마음 하나를 내는 것, 그것이 가장 치열한 정진"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서원은 이제 사찰을 넘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수행공동체'이자 '가족'으로 묶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사찰에서 함께 정진하며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 주는 '수행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는 '법(法)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모델이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손을 잡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인연의 다리를 놓게 됐습니다.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웃는 상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풍경을 완성하는 것이 제가 원오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정관 스님은 오래 인연을 이어 온 이대호 선수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관 스님과 명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강민호, 이대호 선수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정관 스님이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을 살피고 있다.



2023년 4월 29일 원오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중창 불사 준공식.



원오사 명상문화센터 전경. 엘리베이터와 구름다리를 통해 누구나 편하게 도량을 오갈 수 있다.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70호 | 14 | 전면광고

여래의 가르침을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항상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행복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당 절터 안내

- 150평(실사용 평수 200평)
- 산 중턱 사계절 마르지 않는 약수물, 도로, 전기 완비
- 250m 앞 청정바다 보시면 감탄
- 가액 : 대출1천 5백 안고 1억 1천 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3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시약로 반야암
- 법당 포함 38평
- 가액 : 5000만원

010-9154-66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전길 2173
- 법당 25평, 요사채, 미륵불
- 답 1000평 활용 가능
- 권리금 6000만원

010-5585-249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불광동 전철역 옆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법당 30평, 방 2개

스님 이민관계로 시설비 천만원에 법당 에어컨, 냉장고 일체 드리고 갑니다

010-5399-1225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 병원서 10분거리(안강 방향)
- 부지 : 250평(+국유지 200여평 밭 사용중), 명당 중의 명당(서출 동녘 수)
- 법당 : 8각 판넬 법당, 요사채(적별돌)1동+1동, 사물실 1동, 정남향
- 특징 : 마르지 않는 1급 청정수(가재들 삶), 2차선 도로에서 산으로 100m 끝집, 버스(20분 격), 정류장은 절에서 150m, 수도, 전기, 슈퍼 도보 500m, 대형슈퍼 차로 10분 2개, 동국대 병원 20분/경주 중앙시장 20분
- 가액 : **3억 5천(5천내렸습니다)**/부동산 사절

010-8847-4610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선운암
- 종교용지 : 약 247평
- 전통기와 법당 : 약25평. 단청, 탱화, 삼존불을 모시고, 상단, 신중단, 영가단으로 구성
- 요사채 : 약 30평, 방 3개, 식당 1, 화장실 2개, 창고 2개 / 약15평
- 사찰 접경 임야 : 약 577평
- 부도탑2, 사찰경내 석조미륵좌상 1개, 탑1개, 돌탑4개, 주차장 포함
- 가액 : 7억 5천만원

010-2351-301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 마산 서성동 대로변 2층(마산 어시장 인접)
- 규모 : 2층 43평 법당 : 삼존불 방 : 2(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비 : 500 / 즉시법회 가능

010-9276-5829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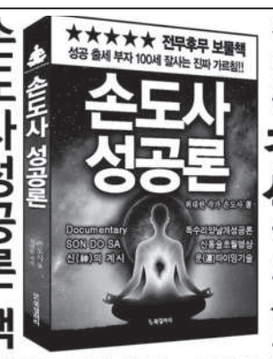
010-3840-4355

궁금하신 내용, 다 풀어 드립니다

심리치유, 사주, 신점, 운세

혜성 보살
010-3674-2533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세상 돕는 것이 수행”…자비로 빚은 ‘이타〈利他〉’의 역사

신뇨엔, 사회에 행복을

② 사회공헌

종교의 진정한 가치는 담장 안의 기도가 담장 밖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증명된다.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眞如苑)의 역사가 유독 빛나는 이유는 전 세계 100만이라는 교세의 확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90년간 묵묵히 걸어온 헌신적인 ‘사회공헌’의 족적 때문이다.

신뇨엔에게 사회공헌은 단순한 자선(Charity)이나 기부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도량에서 닦은 지혜와 자비의 수행 정신을 사회라는 거대한 현장에 구현하는 ‘실천적 보살도’이자, 타인의 구제를 통해 나의 수행을 완성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결정체다. 재난 현장의 긴박한 구호부터 청년 예술가의 꿈을 지키는 문화 후원까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신뇨엔의 사회공헌 활동을 조명한다.



신뇨엔은 11개 공익재단을 설립하며 교육, 학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문화분야에서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의식을 대중화하여 공헌하고 있다.



하와이에서 펼쳐지는 등롱띄우기 축제 모습.



SeRV를 통한 직접 구호 활동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2025년 30주년을 맞은 기요사토 미술관. 한국 사진작가 지원을 받았다.

재난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SeRV’

신뇨엔의 사회공헌은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 중심에는 신뇨엔 청년회와 신도들로 구성된 재해 구원 봉사단 ‘SeRV(Shinnyo-en Relief Volunteers)’가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의 사명”이라는 가르침 아래 결성된 SeRV는 지난 30여 년간 재해 현장이라면 국경을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SeRV의 활동은 지혜의 등불이다. 재난이라는 어둡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신속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움직이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삶의 의지라는 불씨를 지피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노토반도 지진 등 일본 내 대형 재해는 물론, 세계 각지의 참사 현장에서 SeRV 단원들이 입은 주황색 조끼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의 봉사가 특별한 점은 단순히 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무너진 잔해를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RV 단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는 ‘경청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한다. 물질적 복구보다 마음의 복구가 더 중요하다는 신념, 즉 ‘손발을 움직여 땀 흘리는 보시’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SeRV 활동의 본질이다.

경계를 허물고 평화를 띄우는 ‘등롱 띄우기’

신뇨엔의 사회공헌은 열정적인 구호 활동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평화 활동 또한 그들의 중요한 축이다. 자비로움이 마치 물처럼 유연하고 넓게 퍼지며 전 세계를 감싸 안는다. 대표적인 것이 매년 하와이와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거행되는 ‘등롱 띄우기’ 행사다.

어두운 밤, 잔잔한 물 위에 수만 개의 등불을 띄우는 이 장엄한 의식은 본래 일본 전통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수륙재처럼 일본에서는 등롱을 물에 띄우며 뭇생명의 평화를 발원한다. 물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흐르며,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힘을 가진다. 등롱 띄우기는 종교와 인종, 국적과 이념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평화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전쟁과 기아, 재해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이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등불에 담아 물에 띄워 보낸다. 이토 신죠 원주는 “물 위에 뜬 하나의 등불은 작지만, 그 빛들이 모이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대한 광명이 된다”며 “이 자비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진정한 평화(World Peace)를 이루기를 서원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불교의 자비 사상이 현대적 문화 코드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끊임없는 인재불사, 문화 후원 눈길

‘기요사토 사진미술관’을 통한 청년 후원은 신뇨엔의 인간 정신문화를 살찌운 예술 후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사진’을 매개로 한 30년간의 지속적인 후원은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5년 일본 야마나시현의 숲속에 문을 연 ‘기요사토 사진미술관(K-MoPA)’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전 세계 청년 예술가들의 꿈을 지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개조 이토 신조는 생전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眞如)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사진 예술에 깊은 애정과 철학을 가졌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이 미술관은 ‘영 포트폴리오(Young Portfolio)’라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35세 이하의 전 세계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왜 하필 ‘청년’인가? 이에 대해 신뇨엔은 “예술가의 20~30대는 가장 열정이 뜨겁고 창의력이 빛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라며 “젊은 날의 타오르는 예술혼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상업적 가치나 명성이 아닌, 오직 작가의 가능성과 열정만을 보고 작품을 구매해 영구 보존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무명 사진가가 빛을 보았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佛性)이 있다’는 신뇨엔의 인간 존중 사상이 ‘예술가 후원’이라는 문화적 보시로 구현된 것이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곧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일임을 신뇨엔은 증명하고 있다.

삼륜청정(三輪淸淨) 보시, 지속가능 미래 열다

신뇨엔의 모든 나눔 활동을 관통하는 철학은 ‘삼륜청정’이다. 주는 자(施者), 받는 자(受者), 그리고 주는 물건(施物)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뇨엔은 11개의 공익 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학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오지 학교 건립,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및 식수 지원 사업, 그리고 전 세계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은 신뇨엔의 시선이 ‘현재의 구제’를 넘어 ‘미래의 자립’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자립하여 또 다른 나눔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오우메 숲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활동은 기후 위기 시대에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나의 수행이 이웃의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자비의 선순환’. 신뇨엔이 지난 90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100년을 향해 걸어갈 ‘사회에 행복을’ 전하는 길이다. 이타의 실천이 곧 나의 행복임을 믿는 신뇨엔 교도들의 아름다운 땀방울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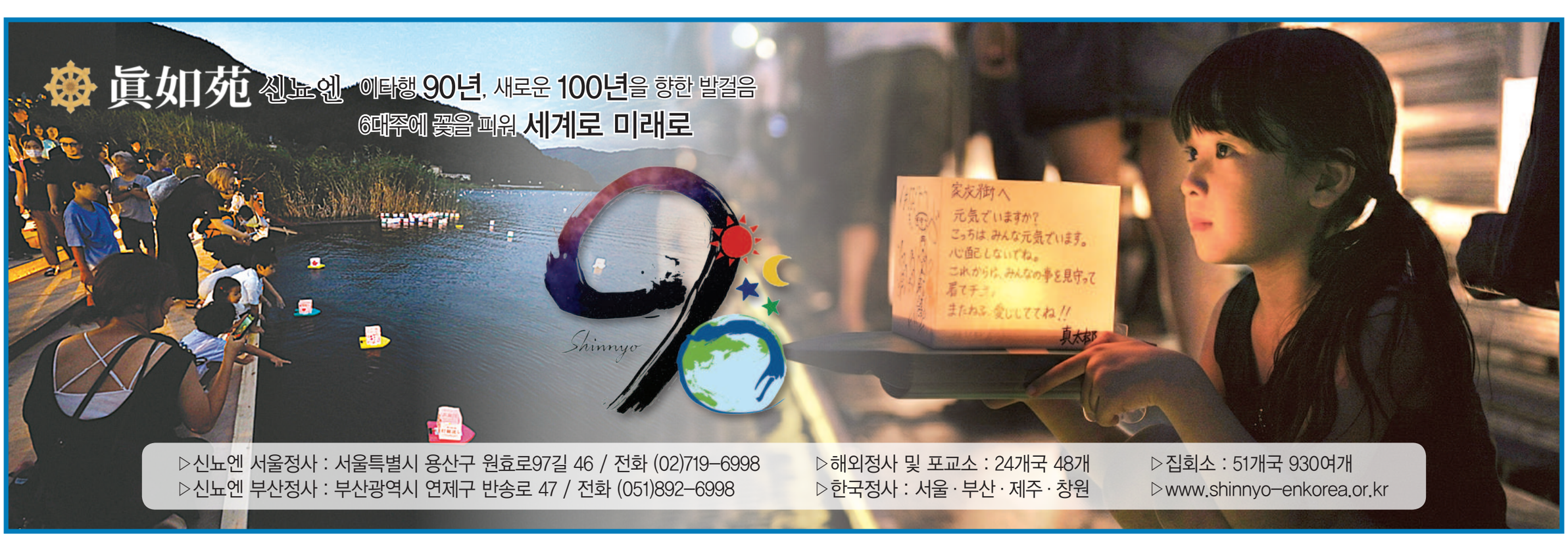
미래 100년 향한 발걸음 박차

창종 90주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뇨엔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하다. 2013년, 이토 신죠 원주에 의해 차기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토리카에 다카시(鳥飼尚之) 후계자의 행보는 신뇨엔의 미래 비전을 짐작게 한다.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약학박사 출신인 그는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종교인으로서의 영성을 겸비한 인물이다. 1981년 입교 후 개조의 인품에 이끌려 수행의 길에 들어선 그는, 교단의 핵심 가치인 ‘진여’와 ‘이타’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한다.

토리카에 후계자는 “전통은 계승하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생성 AI의 시대일수록 인간의 깊은 정신 영역에 대한 종교인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사회공헌 활동 확대와 타 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융화 세계’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해의 더께 걷어 내야 할 '공'〈空〉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② '공(空)'은 어쩌다 '허무'가 되었나: '공'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불교의 공(空)은 '공허·허무·허망'으로 오래도록 잘못 읽혀 왔다. 그러나 〈설문해자〉를 통해 공은 단순히 존재가 지워진 '무(無)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담기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안이 뚫려 있는 '구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공'을 허무함이 아닌 가능성의 언어로 다시 봐야 한다. 사진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공염불'이라는 말을 살펴보았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이라는 글자에 수행의 대표어인 '염불'까지 덧붙은 단어가, 어쩌다 허무와 실패의 상징이 됐는지 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그 질문을 한 걸음 더 밀어붙여 보려 한다. 그렇다면 왜 '공(空)'은 이토록 허무하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읽히게 됐을까.

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서양에서도 불교를 '모든 것이 꺼지는 사상'쯤으로 말해 왔다. 불교를 기독교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던 니체조차 '공(空)'을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이들의 '수동적 허무주의'로 정의했는가 하면, 초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열반'을 '소멸'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 틈에서 불교의 공(空)은 '공허·허무·허망'으로 오래도록 잘못 읽혀 왔다.

이제 그 오해의 기원을 불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찾아보려 한다. '허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억울한 누명을 써 온 '공(空)', 이제 그 억울한 속박을 풀고 본래의 당당한 명예를 되찾아 주려 한다.

'제로 콜라' 환영받는데 왜 불교 '공'은 외면받나

요즘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다. 바로 '제로(Zero) 열풍'이다. 현대인들은 이제 당분을 뺀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고, 칼로리를 비운 음식을 찾으며,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한다. 이때 '제로'는 결핍에 대한 비애가 아니다. 오히려 가벼움과 건강, 나아가 윤리적 가치를 향한 세련된 환희에 가깝다. '공(空)'이 허무주의라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 '제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세련된 비움으로 추앙받고 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무(無)'가 상태를 담담히 기술하고[무의미, 무조건], '허(虛)'가 내용의 실체 없음을 꼬집는다면[허언, 허상], '공'은 유독 우리 일상 언어 속에서 냉소적인 단죄의 언어로 쓰인다. '공쳤다', '공약(空約)', '공수표'를 내뱉을 때의 온도는 차갑다 못해 시릴 지경이다.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는 허탈함을 넘어, 기대를 걸었던 자신에 대한 자조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비어 있음'을 말하는데, 왜 어떤 것은 트렌디한 감각이 되고 어떤 것은 케케묵은 허무주의가 된 것일까.

우리의 기대가 너무 뜨거웠던 것

우리가 '공'에 냉소적인 이유는 '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자리에 무언가 꽉 차 있기를 바랐던 우리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수동 소금빵이 유명하다기에 일부러 퇴근길에 몇 정거장을 더 가 좁은 골목 끝에 줄을 섰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닿자 '역시 잘 왔네' 싶었다. 그런데 내 앞 한 팀을 남겨 두고 직원이 출입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재료 소진 금일 품절.' 멍하니 그 문구를 읽다 허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중얼거린다. "하…, 공(空)쳤네."

이때 느끼는 강렬한 상실감이 바로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공'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약속에는 반드시 이행이, 말에는 반드시 보상이나 이득이 꽉 차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과 욕망이 뜨거울수록 '공'이라는 접두사는 배신당한 기대가 내뿜는 날카로운 화풀이가 된다. 결국 '공'이라는 글자가 서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뜨거웠기에 그 온도 차가 '허무'라는 화상을 입힌 것이다.

진공청소기의 '유능함'과 공기의 '생명력'

우리가 씌운 누명과 달리, 사실 일상 속 '공'은 매우 유능한 일꾼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진공(眞空)청소기를 보자.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은 역설적으로 그 내부가 완벽히 비어 있을 때 발생한다. 비어 있지 않은 청소기는 소음만 요란한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이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진공(眞空) 포장도 그렇다. 또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공기(空氣) 역시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기운'이다. '공'이 없으면 우리는 단 몇 분도 버틸 수 없다.

허무와 실패의 상징이 된 글자 '공(空)'
높은 기대감 반하는 상실감 투영
〈설문해자〉서는 안이 뚫린 구조 뜻해
비어 있기에 다름 받아들이는 지혜 뜻
고정되지 않은 역동적 가능성의 언어

그런데 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공'을 기능이 아닌 '결핍'으로, 생명이 아닌 '허무'로 읽어 내려 할까. 그 누구도 진공청소기의 '공'자를 보고 '허무하다'고 탄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어 있기에 강력한 흡입력을 갖췄다고 신뢰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로 가득 찬 마음은 세상을 흡수할 힘을 잃는다.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지혜와 타인의 마음을 빨아들일 힘이 생긴다.

사진을 지우는 마음, 타인을 맞아들이는 여백

이번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자. 사진을 더 찍기 위해 기존 이미지를 정리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기억을 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불교의 '공' 역시 의욕의 '삭제'가 아니라 새로움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잡다한 파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삶의 새로운 운영체제(OS)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공'의 미학은 관계에서도 빛을 발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출 때,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여백이 없으면 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엉겨 붙은 상태일 뿐이다. 공간(空間)이라는 글자 그대로, 존재는 '비어 있음[空]'과 '그 사이[間]'가 만나 이뤄진다. 나와 너 사이의 적당한 비어 있음이 있어야 그 틈을 통해 마음이 오가고 소통이 시작된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설문해자〉와 '구멍'의 미학

한자의 기원을 찾아가면 '공'의 명예 회복은 더욱 확실해진다. 가장 오래된 한자 자전인 〈설문해자〉를 보면, 공(空)은 원래 '구멍'이나 '동굴'을 뜻하는 글자였다. 이는 단순히 존재가 지워진 '무(無)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담기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안이 뚫려 있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구조적 비어 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도넛이다. 도넛 한가운데의 구멍은 비어 있기에 실패인가? 아니다. 그 구멍이 없으면 도넛은 그저 평범한 튀김 빵일 뿐이다. 구멍이 있기에 도넛이라는 고유한 형태가 완성되고, 손에 쥐기도 좋으며 속까지 바삭하게 익는다.

또 비어 있는 공간의 가치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은 주차장이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한 '빈 공간'은 구원과도 같다. 초록 불빛 아래 비어 있는 한 칸은 나를 밀어내는 '결핍'이 아니라, 지친 나를 기꺼이 받아 주는 '환대'다. 불교의 공도 다르지 않다. 나를 지우는 허무가 아니라, 마음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는 지혜다.

'공수래공수거'와 무한한 스테이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자포자기나 허무주의적 체념이 아니다. 내 손이 비어 있어야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잔을 쥘 수 있고,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가장 활기찬 생존의 선언이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제 불교의 '공'을 다시 보자. 그것은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간 뒤의 허전한 빈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정된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가능성의 언어다. 무대 위가 텅 비어 있어야 비로소 연극이 시작되듯, '공'은 우리 삶이라는 연극이 펼쳐지는 무한한 스테이지다.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공'이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 '공'이 여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고.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빈자리가 있느냐고.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사찰 천정벽화에 펼친 감로 법회

사찰벽화 명작순례

⑤ 합천 해인사 명부전 천정의 비천벽화


해인사 명부전 협간천정의 가무비천과 주악비천.


해인사 명부전 어간천정의 봉황과 학을 탄 주악비천.

운룡도(황룡)	운룡도(쌍룡)	운룡도(청룡)
공양(천도)+주악(태평소)	우물반자천정 (선학 · 연화문 단청)	주악(해금)+공양(천도)
주악(대금)+주악(장구)		가무+주악(나각)
주악(북)+주악(당비파)	주악(생황)+주악(바라)	가무+주악(박)

천정에 7점의 대형 비천벽화

해인사 명부전은 대적광전 향우측인 동쪽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고적도보〉 제13권에 수록된 해인사 사진을 보면 명부전은 조사전과 함께 현재의 위치 반대편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대비로전 위치에 있었지만 대비로전을 지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명부전은 내부에 걸려 있는 '명부전창건유공기'에 의하면, 1873년에 창건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다. 또 명부전의 주존인 지장보살삼존과 시왕, 동자상 등은 건물을 지은 후 진해 성흥사에서 옮겨 와 봉안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단청과 벽화는 광서 7년(1881년)에 수용·관허·경담 스님 등의 화승이 그렸다는 사실이 내부에 걸려 있는 '명부전단확기'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단확'이라는 개념은 안료 광물인 '단사'와 '청확'을 합성한 말로서 '단청'과 같은 말이다. 둘 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화를 뜻한다. 단청의 개념에는 '별지화'라고 부르는 벽화도 포함한다. 해인사 '명부전단확기'는 불전 건물의 벽화를 그린 사람을 알게 해 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미술사적 가치를 가진다.

해인사 명부전 내부에는 30여 점의 벽화가 현존한다. 힘차게 용틀임하는 대형 운룡도 3점, 호랑이 사냥 장면을 그린 호렵도 2점, 화조도 10점 등 붓질이 힘 있고, 또 호렵도처럼 병풍으로 제작돼 유통되던 특별한 민화 소재 벽화도 남아 있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서 유행하던 민화의 다양한 소재들이 불전의 종교 장엄까지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그중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벽화는 천정에 그린 비천 그림들이다. 천정은 층급이 없는 평반자천정으로 평평하다. 평반자천정인 까닭에 넓은 화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단청 장엄을 베풀기 위해 천정을 모두 12개의 화면으로 나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축 구조에 의해 천정에 여섯 칸의 구역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각 칸마다 두 개씩의 화면을 만들어 모두 12개의 화면으로 구획했다. 어간 중앙부 두 화면만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만든 우물반자이고 천정의 나머지 가장자리 10개 화면은 모두 널빤지로 짠 평반자이다. 하나의 화면은 8~10개의 널빤지로 이어 붙여 만들었다. 한 화면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세로 115㎝, 가로 240㎝에 이른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가 넘는다. 가로로 긴 화면 특성을 가져 화면이 시원하다. 미술품으로 환산하면 150호에 이르는 대작 크기다. 천정의 12개 화면에 그린 단청과 벽화 구성은 위 표와 같다.

명부전 천정의 12개 화면은 운룡도 3개 화면, 우물반자 단청 2개 화면, 나머지 7개 화면은 모두 비천 그림으로 구성했다. 비천벽화 7점은 향우측 협간에 3점, 어간 입구에 1점, 향좌측 협간에 3점씩 대칭적으로 배치했다. 등장하는 비천은 한 화면에 2명씩, 모두 14명이다. 네모난 평천정에 14명의 천인이 천의 자락을 나부끼며 너울대고 있다. 천정이 온통 하늘을 나는 천인들의 세계다. 밀도감 있는 천인들의 역동적인 집단 군무 의례가 경이로움과 환희의 기쁨으로 이끈다. 한국 산사 대부분의 비천벽화는 법당의 동·남·서 삼면의 가장자리 빗반자에 일렬로 쭉 파노라마식으로 나열된 형식으로 그려 배치한다. 집합 평면을 해체해서 선형으로 늘어뜨린 방식이다. 선형으로의 확장은 연속성은 살려 내지만 집중력을 흩트리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해인사 명부전의 비천벽화 경영위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반대로 점·선을 결집시켜 입체화했다. 운동장 같은 하나의 평면에 14명을 집결시킨 방식이다. 밀집도를 갖춘 집단 군무를 통해 의례의 격식도 한 차원 높이고 시각적 집중력도 극대화했다. 화면에 힘이 있고, 아우라가 있다. 화면을 기획하고 해석한 경영위치 안목이 탁월하다. 천정 평면을 환희와 예경의 의례가 이뤄지는 천상의 공간으로 해석한 괄목할 만한 해석 능력을 보여 준다.

주악비천, 가무비천, 공양비천

14명의 비천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예경을 올리고 있는가? 하늘을 나는 천인인 비천은 통상 세 부류로 나뉜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 춤사위를 펼치는 가무비천, 그리고 공양물을 올리는 공양비천의 셋이다.

해인사 명부전의 비천 14명 중 대부분은 주악비천이다. 주악비천 10명, 가무비천 2명, 공양비천 2명으로 편성했다. 주악비천은 모든 화면에 등장하고, 공양비천은 지장보살과 시왕께 앞서 나아가 헌공하는 까닭에 두 분 모두 앞 칸에 배치했다. 어린 쌍상투 머리를 한 동녀는 작은 접시 위에, 선녀형 머리를 한 천녀는 커다란 접시에 천도 형상의 과일을 담아 공양 올리고 있다.

14명 비천의 집단군무 통한 공양의례
주악비천 10명이 갖춘 전통악기 10가지
명부전 벽화에 고구려 고분벽화 전통
명부전 비천벽화는 수륙재 의미와 상통

과일 공양은 향, 차, 꽃, 등, 쌀과 함께 '육법공양(六法供養)' 중의 하나다. 왜 여섯 가지 공양물을 '육법(六法)'이라 할까? 그것은 부처님 법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등불은 진리, 향은 지계와 해탈, 차는 감로, 과일은 깨달음인 보리과의 의미를 가진다. 불교의례에서 상단에 오르는 공양물은 모두 법으로 승화돼 대중에게 회향한다. 그 또한 감로로 돌아온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공양비천과 주악비천을 함께 그린 제일 안쪽의 두 벽화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배치 구도다. 두 곳의 화면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세로는 상대적으로 짧고 가로는 길다. 역동적인 주악비천을 세로 방향 그대로 표현하기엔 화면의 세로 길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악비천을 가로로 길게 눕혀 그리는 발상을 시도했다. 화면을 적극 활용하여 허전한 곳 없이 기운생동의 에너지를 구석구석 펼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비천의 머리 장식은 묶음 머리를 하거나 모자를 착용하게 했다. 남성적인 비천은 문수동자처럼 쌍상투 묶음을 했고, 여성적인 비천은 두 개의 둥근 고리 모양으로 묶어 올린 선녀 머리 형식으로 꾸몄다. 선녀 머리 형식은 고구려 벽화고분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고분, 무용총 등에서 거문고나 완함을 연주하는 주악비천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다. 명부전 비천벽화 속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도한 미술사적 흐름이 있다. 묶음 머리를 하지 않은 비천은 모자로 멋을 부렸다. 커다란 연잎이나 활짝 핀 모란꽃을 모자 삼아 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 사또 모자를 연상하게 하는 깃 달린 전립을 쓰기도 했다. 예를 갖춘 의장의 품격이 스며 있다.

해인사 명부전 감로의 큰 수레

의식무를 펼치는 두 가무비천은 손에 든 지물이 없는 까닭에 춤사위의 몸짓이나 소매, 표대 자락 등을 최대한 크게 부풀리고 운동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양어깨는 날갯짓하듯이 활짝 펼쳤고, 발 디딤새는 박차 오르듯이 힘이 들어가 있다. 소매 자락의 펄럭임도 크고 역동적이다. 가무비천이 있는 두 화면은 남녀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있다. 가무비천이 춤사위나 소매 자락, 어깨 품이 크고 거칠면 주악비천은 힘의 요소를 약하게 틀어 보다 부드럽게 낮췄다. 큰 소매에 작은 소매를 대응시켜 들숨 날숨처럼 음양의 원리로 태극의 형세를 이루게 표현했다. 화면 하나마다 태극이 있고, 화엄이 있다. 그 원리가 전통춤과 장단의 기본 원리인 '큰 소매 작은 소매의 원리', 곧 '소삼대삼(小衫大衫)'의 원리다. 이때 '삼(衫)'은 '소매'를 뜻한다. 화면 속에 전통 춤사위의 원리가 내재돼 있다. 가무비천이 있는 두 화면은 몸짓의 질감, 팽창력, 긴장감, 변화력이 최고조로 고양돼 있다. 역동적인 힘은 특히 가무비천의 휙휙 감겨 펄럭이는 표대 자락에 직관적으로 대입시켰다. 화면의 춤사위에 흐르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지장보살 대원공덕에 대한 지극한 예경과 감로에 대한 벅찬 환희지의 은유로 봐야 한다. 음악이나 춤, 공양은 뜻의 시각화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가무비천과 소라처럼 생긴 관악기 나각을 부는 주악비천을 그린 화면은 7점의 비천벽화 중에서도 예술적 성취도가 가장 뛰어나다. 미켈란젤로가 1512년에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벽화 '천지창조'의 구도와도 닮았다. 한 쌍의 남녀로 음양의 궁극적 조화로, 태극 우주로 승화시켰다. 주돈이 선생은 〈태극도설〉에서 설했다. 태극에서 음양과 오행이 나오고 남녀가 생기고 만물화생으로 전개한다고. 서양의 성당 천정벽화에 천지창조가 있다면, 한국 산사의 천정벽화에는 남녀의 음양 조화로 표현한 태극우주가 있다.

벽화 속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은 모두 10명이다. 그것은 곧 벽화 속에 10가지 악기가 등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태평소, 나각, 대금, 생황의 관악기 4점, 당비파와 해금의 현악기 2점, 장구, 바라, 박, 북 등 타악기 4점 해서 모두 10점이다. 한 무리의 관현악단을 편성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명부전에 주악과 가무, 공양비천을 벽화로 장엄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세 비천은 곧 공양헌공과 범패(음악), 작법(춤)의 의미다. 그 조합과 편성은 불교의례의 펼침과 상통한다. 명부전은 대원본존 지장보살께서 상주하시는 불전이고, 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무대다. 의례가 명부전의 특수 공간과 결합하는 순간, 의례는 수륙재이고 예수재이며 영산재로 통한다. 해인사 명부전의 비천벽화는 우리를 감로의 법회로 이끈다. 큰 수레에 올라 다같이 법비의 감로에 젖게 함이다. 명작 비천벽화가 있는 해인사 명부전이 감로의 큰 수레다.



노재학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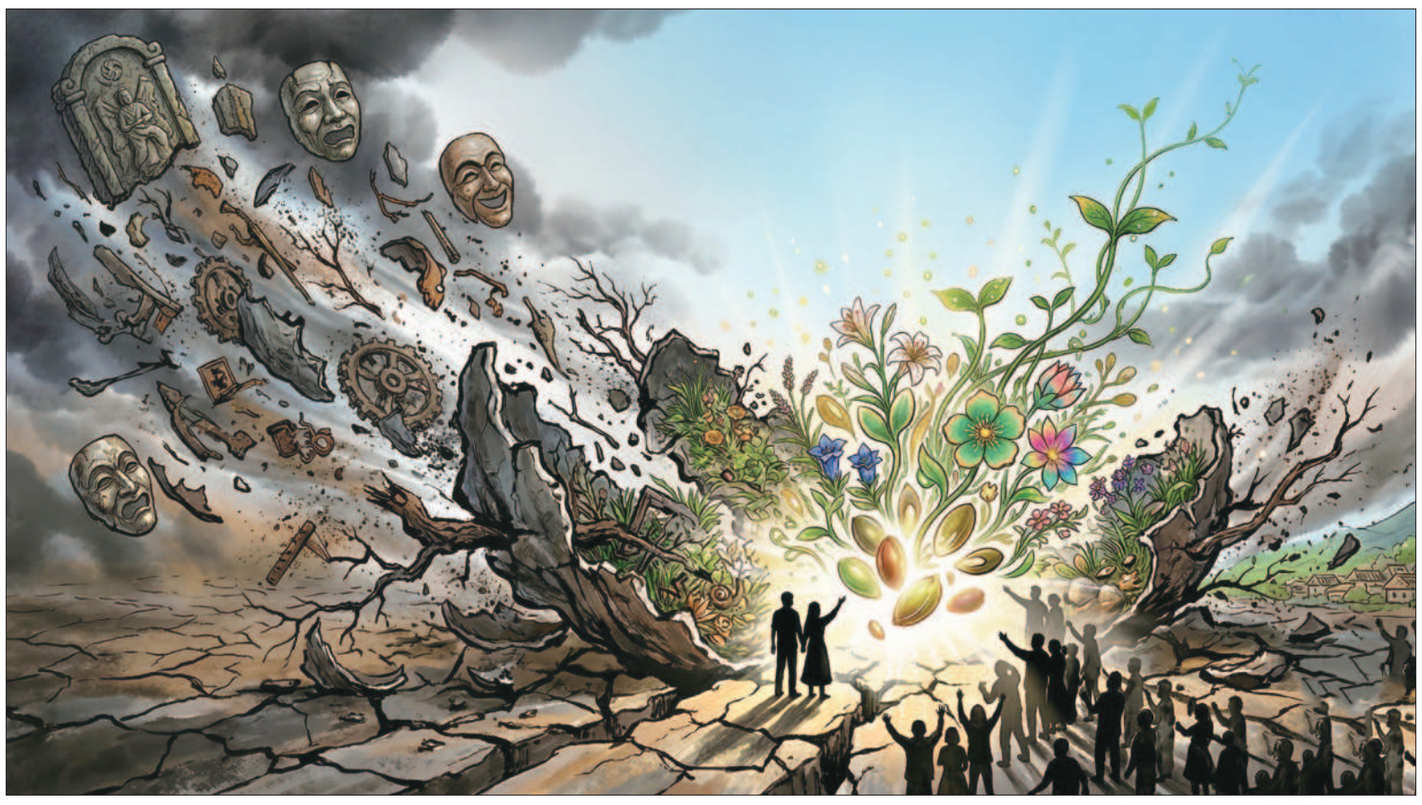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껍데기의 삶

시, 불교를 만나다

㉗ 아상(我相) 비우기 :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판소리도 잘하고 전통 탈춤도 잘 추는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길을 가다가 풍물 소리가 들리면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곤 했다.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다. 어떻게 그처럼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지 말이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나를 비우면 돼."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비우면, 언제 어디서든 거리낌 없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고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선배가 말한 '나'는 바로 〈금강경〉에서 강조한 '아상(我相)'이었다. 당시 선배의 말을 듣고 나에 대한 의문점 하나가 풀렸다. 어떤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차례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심장이 뛰고 긴장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아상'이란 놈이 바로 울렁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 선배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신동엽(申東曄, 1930~1969)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읽으면서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다. 물론 맥락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시인이 말한 껍데기와 앞서 언급한 '아상'은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아상은 참다운 나를 숨기고 있는 일종의 가면과 같아서 그렇게 느낀 것이다. 껍데기와 아상을 저 멀리 보내고 진심(眞心)과 진심이 만나는 광장이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즉 정토가 아닐까 싶다.

알려진 것처럼, 신동엽은 김수영(金洙暎, 1921~1968)과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이다. 저항시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범학교에 다니던 1948년 11월 퇴학을 당한다. 이승만 정권이 토지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친일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동맹 휴학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시를 쓰게 된다. 이때 부인 인병선을 만나 결혼하는데, 그녀는 서울대에 입학했으나 가난한 시인을 위해 중퇴하고 살림을 책임진다. 오늘날 신동엽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은 그녀의 희생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동엽은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는 작품이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일어난 4·19혁명은 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당시 그는 혁명 정신을 기린 〈학생혁명시집〉을 출간하고 참여하게 된다. 그의 대표작인 '껍데기는 가라'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또한 4·19혁명을 배경으로 쓰인 작품이다.

창작 활동을 이어 가던 시인은 1969년 지병인 간암이 악화해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사후 아내 인병선은 남편의 육필 원고를 모아 유고집을 발간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동엽의 주옥 같은 시들은 부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동엽문학상이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오늘의 시 '껍데기는 가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시는 1967년 발표됐는데, 민주화의 열망으로 일어난 4·19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5·16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느낀 시인의 아픔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동학혁명과 남북 간의 대결이라는 아픈 역사 또한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혁명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현실을 직시한 시인은 온몸을 다해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직접 시를 읽어 보기로 하자.

"껍데기는 가라. /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漢拏)에서 백두(白頭)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4·19혁명 실패·군사정권 아픔 등 담겨
민주화 열망 방해 껍데기 현실 직시도
껍데기인 상(相) 제거 위해 삼독 닦아야

아상(我相)을 제거하라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금강경〉의 사상(四相), 즉 아상(我相)과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떠올랐다. 〈금강경〉은 상(相)과 공(空)의 한판 대결을 다룬 경전이다. 상이 집착이라면, 공은 이를 텅 비우는 일이다. 나와 남, 중생, 영혼이라는 상에 집착하면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아상이다. 나에 대한 집착만 비우게 되면, 다른 상들은 저절로 사라지니 말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생은 상이 공을 이기기 때문에 괴롭지만, 불보살은 공이 상을 압도하므로 집착이 없고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경전은 지혜라는 강력한 방망이, 금강저(金剛杵)로 집착을 물리치고 공을 체득할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상이 이 시에서 말하는 '껍데기'와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는 동학혁명과 4·19혁명, 남북한 대치라는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먼저 시인은 민주화에 대한 순수한 열망인 4·19의 '알맹이'만 남고 허위적인 껍데기는 가라고 노래한다. 동학혁명도 마찬가지로 '아우성', 즉 불의에 항거한 정신과 열정만 남으면 된다. 남북한 대치라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만의 향기를 품고 있는 '흙가슴'이다.

그런데 껍데기가 우리 역사의 순수한 정신을 방해하고 있다. 예컨대 시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전쟁의 위협이 '쇠붙이'라는 상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각종 첨단 무기가 한라와 백두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갈라진 백두대간을 다시 이으려면 껍데기와 쇠붙이라는 상(相)이 제거돼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심과 진심이 만나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서로 맞절할 수 있다.

대학 시절 범상치 않은 포스 때문인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선배가 있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내 의지가 아니지만, 갈 때만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버린 사람이다. 당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가까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마음의 옷을 모두 벗고 다가가는 것이었다. 시에서처럼 껍데기를 벗고 마음의 '두 가슴과 그곳'을 모두 내놓은 채 다가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민낯을 모두 드러내자, 그 역시 마음을 열고 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느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려면 껍데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아상이라는 껍데기를 벗겨 내는 방법이 있을까? 시인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을 닦으라고 한다. 그래야 맑고 순수한 알맹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인의 말을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닦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속 구름 /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 아침저녁 /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 볼 수 있는 사람은 / 외경(畏敬)을 / 알리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결국 하늘이라 잘못 알고 있는 먹구름을 닦아 내야 "티 없이 맑은"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삼독(三毒), 즉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이라는 독한 기운을 닦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학혁명과 4·19혁명의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마음속 먹구름이었던 셈이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알맹이는 드러날 수 없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염불이나 명상, 절, 정근 등의 수행은 이러한 먹구름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보배를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아라(若欲獲寶 放下皮囊)."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修心訣)〉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다. 피낭(皮囊), 즉 가죽 주머니란 소유욕과 명예욕 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상(我相)이라는 못난 주머니를 놓아 버려야 마음에 담긴 온갖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시인이 말한 혁명의 역사 또한 욕망이란 껍데기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 해도 껍질을 벗겨 내지 않으면 알맹이를 먹을 수 없는 법이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진심과 만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진심은 한 번 통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한다. 삶의 질적 전환은 이때 일어난다.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껍데기는 가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죽고 사는 거를 공의 소용돌이 속에 팽개칠 수 있는 대장부라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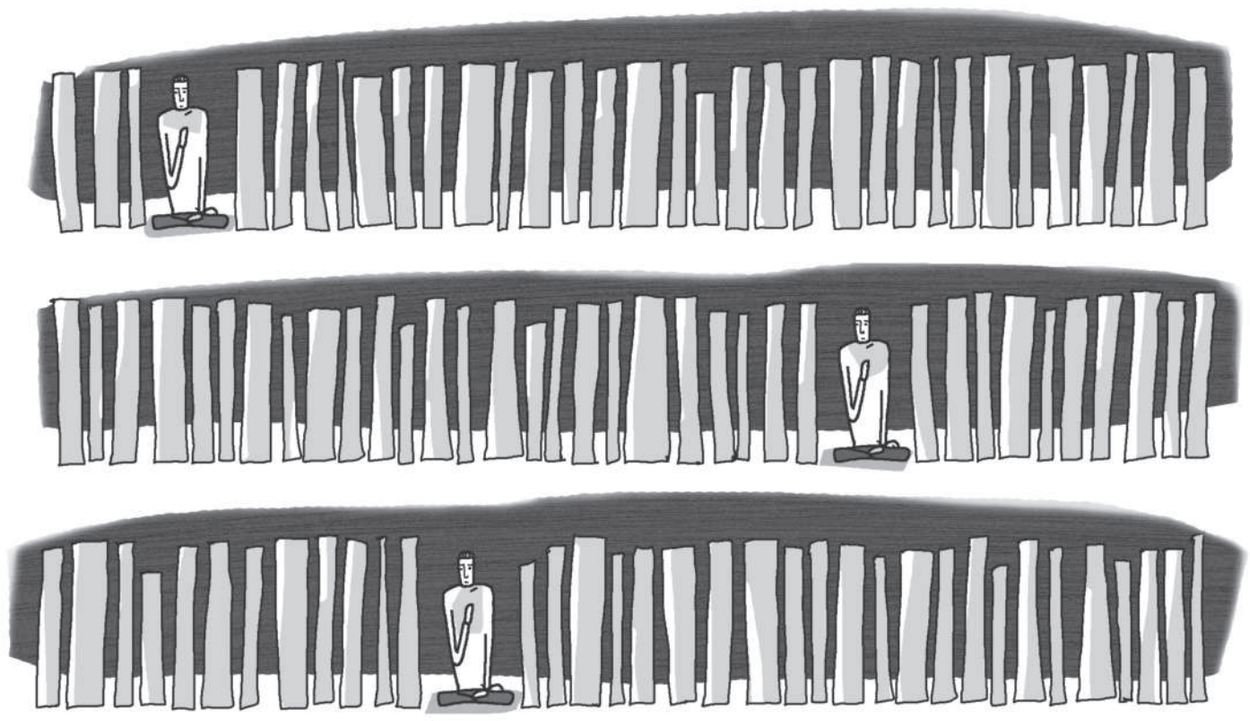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오늘 첫째 일요일 날 또 한자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앞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고도 빡빡, 아주 단정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있고 마음 내고 몸이 움죽거리는 이 삼위일체가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대승불교니 소승 불교니 선 불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다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잘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주인공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죠. 따지고 보면, 뒤집어서 놓고 보면 봄 동산에 한 물건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절에 다녀도 똑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부친다든지, 또는 백배를 하든지 천배를 하든지 삼천배를 하든지 또 일배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죽거려지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죄업이 있느니 업보가 많느니 이런 데에 걸리지 말란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팔자가 이렇느니 운명이 이렇느니 이러시는데, 이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식을 씌워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씌워 주기 이전에 벗겨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벗어진다면 여러분도 벗어질 거고 내가 씌워졌다면 여러분도 씌워질 겁니다. 길잡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일체 만물만생, 일체제불이 다 배가 부르듯이, 내 한생각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전부 촉촉하게 배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 새달에, 훗달에 어떠니저떠니, 내년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 소립니다. 말로 따져서 하자면 '무여(無如)'라는 것도 있고 '일여(一如)'라는 것도 있고 '여여(如如)'라는 것도 있고 '즉여(卽如)'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바로 '사구공법(四句空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린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끝 간 데 없는 이 평등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끄달려서 속고 삽니다. 속아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 간 데 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 잘 들으세요. 팔만대장경이 글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둘러치듯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의 근본이자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즉행이며 즉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즉설이 돼야 법으로 행해지게 되죠. 한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해서 한데 떨어지면 위로는 부처님께 누가 되고 또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어요. 빛, 햇빛! 묵은 빚을 갚지 못하고 햇빛을 줄 수 없으니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소리지요.

모두들 조상 따로 두고 부처님 따로 두고 그러는데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개구리 어머니가 새끼 개구리 둘을 업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져서 뒤집혔는데 엄마를 따라가려고 바둥바둥하더라고요. 어미 개구리는 거기 멈춰 서서 사람의 어머니처럼 "빨리빨리, 얼른 오너라." 하고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자식이 어머니를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부처란 얘기예요. 마음! 마음이 있다면 행이 나오니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유생 무생이 다 그렇단 얘기죠. 사생이 다 그렇다 이 소립니다. 태로 나는 거라든가 알로 나는 거라든가, 화해서 나는 거라든가 질척질척한 데서 나는 거라든가, 사생이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해골 무더기에다 절을 했다는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사생자부이신데 어찌 해골 더미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는 얘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흙과 물은 어머니로 비유하고 바람과 태양은 아버지로 비유했어요. 흙이라는 데서, 물이라는 데서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인간까지, 100%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는 거냐. 말로 이론으로는 전부 그럴듯하게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우주 근본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는 뜻은…, 보세요. 잘 펼쳐 놓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일에 지쳐 쓰러져서 죽어 가면서 그 자식을 다 기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어미 소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어머니만, 소의 어미만 그런 게 아니라 코끼리 어미도 그렇고 코끼리 자식도 어미를 찾는 그 가긍한 마음이 있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럴지언댄 어찌 그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한번 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소극적으로 요 개별적인 나, 요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이 아닌 뜻을 아신다면 너 나가 없이 찰나찰나 나투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마따나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벌을 봐도 그렇고 개미를 봐도 그렇고요. 개미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생기면 어딘가 말없이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 없이 말을 전달해 가지고 우우 모이게끔 해 놓거든요. 인간도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내 식구를 전부 몰고 가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에 가득 싣고 왔으면 식구들이 몽땅 가서 모두 들고 들어오듯이, 개미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믿는다고 해서 밥이나 떡이나 해 놓고 빌고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지장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찰나찰나 놓고 가는데 무슨 짊어진 게 있는가

☞ 19면에서 계속

독성 따로 있고 용신 따로 있고 지신 따로 있고 조왕 따로 있고 목신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소견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북하면 삼십이상의 구족함과 삼십이응신의 구족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고 들이는 데 조금도 걸림 없는 구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부처님은 항상 나투면서, 사람에게만 나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나투어요.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돼 줘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렇게 찰나찰나 나툴 때에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가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관세음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라는 건 마음 깊은 속에 보배와 같은 것이 흙 속에 묻혔다고 해서 바로 지장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죽거리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닐지언댄 승보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 세상도 있는지를 몰랐고 상대도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죽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죽거리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죽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마음 내는 것 따로 있고 움죽거리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 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 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지 않겠지. 여기 칠성님 전에 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의 명이 길지 않겠지. 약사보살한테 놓지 않으면 병이 안 낫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고정됨도 없을 뿐더러 고정관념도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있는가. 모두가 공했어요. 공한 것은 없어서 공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찰나 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린애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늙었을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꽉 찼기 때문에, 한 물건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효 대사는 한 물건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놓으니까 낙엽을 일부러 갖다가 뿌려 놓으면서, 잘못 쓸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가진다면 항상 바둥거리고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놓지를 못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신발 벗어 놓고 들어오듯 그렇게 착을 두지 말고 놓아라 이겁니다. 본래 놓고 가는 거니까, 본래 제자리걸음으로 끝 간 데 없이 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하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배고 이건 돛대고 이건 사공이고 이건 물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마르면 직접 그냥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불제자로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목마른데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면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더라.' 하고 보고 듣고 해도 자유스럽게 떠 먹지 못하고 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묵은 빚을 갚으며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짊어지고 나온 것이, 즉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콩씨 얘기 했듯이 말입니다. 작년 콩씨를 심었더니 올해 콩나무로 화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콩나무에 콩이 열렸지요. 작년 콩씨는 화했잖아요. 한 찰나에 화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요. 무조건 없는 거라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없어요. 현재는 공해 버렸다 이 소리예요. 공해 버렸다. 그러니 짊어진 게 없어요. 찰나찰나 놓고 가는데 무슨 짊어진 게 있냐 이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된 행이 있어요? 근데 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도 짊어진 것이 없는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짊어졌다고 해 놓고 짊어짐을 받는 거죠. 깔축없이 자기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한 게 없습니까? 허허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계율을 알고 교양을 알고 상식을 알고, 그리고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계율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250계나 500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을 필요도 없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름 지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시시각각으로 보고 듣고 살고 움죽거리는데, 인간이라면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계율이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인간으로 나왔다면 다 아는 바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뛰어넘을 것이 없이 뛰어넘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죄가 있네 없네, 과거의 업보가 있네 없네, 팔자가 있네 없네, 조상의 탓이네 아니네, 동쪽이 무슨 뭐, 삼살방이 들었네, 올해 삼살방이 들어서 집을 못 짓네,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네 하고 잠재의식 속에 아주 구태의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미신 짓을 하니까 미신이 되죠, 네? 미신 짓을 하지 않는데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날이면 그게 바로 좋은 날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고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막아 놓고 막힘을 받고, 구덩이를 파 놓고 구덩이 속에 빠져서 울고 그럽니까.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프다 할 때는 '허허, 주인공! 병을 나게 한 것도 네놈이니 낫게 할 수 있는 놈도 바로 네놈이 아닌가.' 하고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그렇게 멋진 도리와 그 멋진 불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도 그렇고, 선조들이 그렇게 법을 구하려고 애쓰면서 쓰러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생각도 없어요? 또 한편 우리가 물을 쓰지 못하면 죽는데 물한테 고마운 줄 몰라요? 불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근거지가 되는 거름이에요. 우리들 생활의 거름이고요. 그러니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었을 때는 자기가 여기 법당에 왔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없어요.

나는 이날까지 잘해 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 달라고 해 본 예가, 손을 꼽고 타의에 빌어 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죠. 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거구요. 그러니 만약에 공에 빠진다면 공의 노예가 될 것이고 물질에 빠진다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과학으로써 첨단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 없이 과학을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발전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말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물질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마음으로써, 정신력으로써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물질에 말려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몸뚱이, 저 모습에 말려들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너희가 네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네 마음을 안다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툼 또한 둘이 아니니라." 나툼이 둘이 아닐지언댄 그걸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반을 못 했는데 그냥 죽는다고 열반인가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한다면 열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어린애를, 핏덩어리를 낳아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해요.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와 나와 둘이 아니게 천차만별의 그 뜻에 응하고 응해 주는 그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땅히 세 번 아닌 세 번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고 가거라. 본래 놓고 가는 거다.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너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 아주 강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질 때에 내 몸뚱이 죽고 사는 거를 다 공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강렬하게 팽개칠 수 있는 아마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될 거다 이겁니다. 더 먹고 더 살면 뭘 하고 덜 먹고 빨리 죽으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⑤ 젖은 날의 가야금

조율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

비가 오는 날은 연습실 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이 약간 축축한 냄새를 품고 있고,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야금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 둡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게 정리해 두었고, 줄도 가지런합니다. 그런데 첫 음을 건드리면 바로 드러납니다. 음이 살짝 낮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그렇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명주실의 정직함

비 오는 날엔 늘 이렇습니다. 가야금 줄은 명주실입니다. 습기를 먹으면 늘어집니다. 이론으로는 익히 아는 사실인데, 막상 손에 걸리는 느낌이 달라지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어제 공들여 맞춰 둔 조율이 하루만에 흐트러졌다는 게 못마땅합니다.

안족을 밀어 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줄 끝에 묶인 굵은 실타래, 부들을 풀어야 합니다. 부들을 풀었다가 다시 감아 묶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줄을 당기며 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도 같이 굳습니다. 한 줄을 맞추면 다른 줄이 내려가 있습니다. 두 줄을 올리면 처음 줄이 또 낮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속에서 뭔가 끓어오릅니다.

조율이 어긋날 때마다 마음도 함께 출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손끝은 그 차이를 먼저 압니다. 같은 악기, 같은 자리인데도 소리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사실이 괜히 얄밉습니다.

툭 끊어진 줄, 손등의 얼얼한 파열음

괜히 날씨 탓을 합니다. 비가 와서 그렇다고, 오늘은 습해서 문제라고 중얼거립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당겨 보다가, '툭' 하고 줄이 끊어집니다.

짧고 마른 소리. 동시에 끊어진 줄이 튕겨 올라 손등을 칩니다. 얼얼합니다. 순간적으로 "아!" 소리가 나옵니다. 손등을 문지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에 가야금 넣고 집에 가 버릴까, 그 생각입니다. 비도 오고 줄도 끊어지고 손도 아픈데 굳이 오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연습실 안은 조용하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시간도 그 속도에 맞춰 느려진 듯합니다. 그래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끊어진 줄을 걷어 내고 새 줄을 겁니다.

부들로 줄을 당기고 또다시 조율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습기를 가득 머금은 명주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겉돌기만 합니다. 눅눅한 공기 탓에 손끝마저 조금 서툴러지지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음이 겨우 자리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짧은 숨을 고릅니다.

비 오는 날 습기로 느슨해진 가야금 줄
무겁고 낮게 퍼지는 음에 여백 넓어져
늘어진 줄의 울림, 마음 되돌아보게 해

눅눅한 울림으로 끝까지

조율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하나씩 음을 확인합니다. 대강 자리가 잡힌 듯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곡을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의 소리는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맑게 튀어 오르지 않고 낮게 퍼집니다. 음과 음 사이가 조금 더 눅눅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갑니다. 이 소리로 한 번 끝까지 가 봅니다.

손끝이 줄을 타고 오르내립니다. 농현을 조금 더 길게 끌어 보고, 숨을 한 박자 늦춰 봅니다. 평소보다 여백이 넓어집니다. 빠르게 흘려보내던 부분도 오늘은 머뭇거리듯 머물다 갑니다. 눅눅한 공기가 오히려 소리를 붙잡아 두는 듯합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 아까 끊어진 줄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손등의 얼얼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손은 계속 움직입니다. 낮은음은 낮은음대로, 조금 둔한 울림은 그 울림대로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다시 맞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연습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같은 소리를 기대하는 쪽이 오히려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젖을 각오를 한 채로

창밖의 빗소리가 조금 더 거세집니다. 집 가는 길이 걱정됩니다. 신발이 젖을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곡을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한 번 더 반복할지 잠시 고민합니다. 결국 한 번 더 합니다. 완벽하게 맞지 않은 줄로, 약간 늘어진 장력으로, 오늘의 상태 그대로 한 곡을 마칩니다. 소리는 맑지 않지만 끊기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끊어진 줄을 손으로 모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부들이 제대로 묶였는지도 살핍니다. 케이스를 닫는 순간까지도 빗소리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조율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줄도 끊어졌고 손등도 얼얼합니다. 그렇지만 연습은 했습니다. 중간에 덮지 않았고 끝까지 한 곡을 마쳤습니다.

비 오는 날의 가야금은 조금 느슨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진 상태로도 다시 묶고 다시 당기며 제자리에서 울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의 공기 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저는 우산을 펴고, 조금 젖을 각오를 한 채 걸음을 옮깁니다.

가야금 명상곡 'Healing Me'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㉙ 어린이가 있는 집 상비약 리스트

"어린이 응급 상황 미리 대비하세요"

아이는 어른에 비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도 자주 나고 아프다.

넘어지고 부딪치는 일도 잦아 상처도 잘 생긴다. 상처에는 밴드가 필요한데 아이들은 밴드를 무슨 스티커처럼 여겨서 잠시만 눈을 돌려도 밴드 한 통 정도는 그냥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실은 스티커보다 밴드 값이 더 저렴하기도 해서 오히려 좋은 건 함정이다.

어린이가 있는 집은 어른과 어린이의 상비약을 구분해 준비하고 보관해 둬야 한다. 어린이들이 알약을 먹지 못하고 복용 나이 제한이 있는 약도 꽤 많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영유아는 입으로 무언가 가져가는 습관이 있으므로 약을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해야 불필요한 약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성인 상비약은 1인 가구 상비약과 같도록 준비하면 되니 지난 27호에 게재한 팁을 참고하면 무난하고, 어린이용 상비약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된다.

①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제는 교차 복용이 가능하도록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시럽 제품과 이부프로펜 혹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제품으로 두 가지 준비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시럽은 만 4개월 이상 복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보다 어린 경우에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6개월 이하라면 사실상 선택지가 이것뿐이다. 열이 심해서, 혹은 잘 때 열이 나서 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좌약도 준비해 두면 좋다.

맥시부펜으로 유명한 덱시부프로펜 성분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 부루펜으로 유명한 이부프로펜 성분은 12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의 개월 수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② 소화제 · 위장약

설사가 날 때 만 2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 있는 지사제가 없다. 상비약으로 소화 정장제 시럽을 준비하고,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화 정장제 시럽은 직접 설사를 멎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장 기능을 정상화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여러 증상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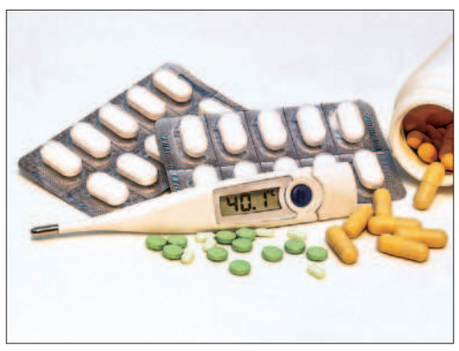


사진 출처=픽사베이

발열 시 교차 복용 두 성분 해열제 구비
배탈에 정장제 시럽과 유산균, 관장약도
발진 · 벌레 물림 연고, 보습제 준비해야

요즘은 마시는 수액으로 잘 알려진 경구 수분 보충액(ORS)도 상비약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들은 탈수 진행이 빨라서 설사나 구토를 무조건 멈추는 약보다는 수분 보충을 잘해 줘야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영유아는 설사보다 오히려 변비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며칠 변을 못 봤다 싶을 때,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응가가 마렵다며 데굴데굴 구르는 상황을 한 번쯤 겪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세 아이 아빠인 내가 세 번 정도 마주했으니 통계적으로 아주 정확할 것이다.

늦은 밤에 당황스럽게 고생을 하지 않도록 관장약 정도는 하나쯤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500원 남짓한 관장약이 없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수도 있다.

③ 종합감기약 · 알레르기약

종합감기약과 알레르기약도 모두 시럽 제형이 있으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단, 만 2세 이하는 복용할 수 없으니, 병원을 방문해 증상과 체중에 맞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 코가 자주 막히는 아이라면 진득한 코를 녹여 내어 코막힘을 완화하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도 함께 준비하자.

④ 소독약 · 외용제

어린아이는 기저귀 발진으로 엉덩이가 짓무르는 경우가 자주 생기므로 기저귀 발진 연고와 보습제를 상비해 두고, 소독약은 저자극용 스프레이로 준비한다.

외부 활동이 많다면 나이에 맞게 벌레 물림에 사용하는 연고도 구입해 두자.

⑤ 기타

귀 체온계, 해열 패치를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호흡기 증상이 잦은 아이들은 약을 연기 형태로 내뿜는 호흡기 치료제(네뷸라이저)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호흡기 치료 기기인 네뷸라이저도 휴대용과 고정형이 있으니 필요에 맞게 구비해 두고, 약을 소량 덜기 위해 시럽 병이나 바늘을 제거한 작은 주사기도 집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갑자기 눈금이 표시된 시럽 병이 보이지 않으면 약이 있어도 먹일 방법이 없어 당황스럽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⑤

시대 관통하는 용 머리와 꼬리의 세계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교육 시간, 학생들이 기기 작동법을 익히고 있다. 비록 서툰 교육이지만, 디지털 세계의 문 앞에 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꼬리는 1850년쯤에 있고 머리는 2050년대와 맞닿아 있는 거대한 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용의 꼬리는 이제 막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대 이전의 흙먼지 속에 잠겨 있고, 머리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21세기 첨단 AI 시대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 머리 가까이에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꼬리 쪽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그 거대한 용의 몸통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타협점을 전혀 모르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세계의 에너지원인 석유의 목줄을 잡고 각종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해 수많은 인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75명에 달하는 이란의 어린 여학생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한국의 재가불자들이 18년 동안 인연을 맺어 온 캄보디아 국경의 작은 마을인 뽀디봉 상공에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으로 포탄이 날아다녀 학교의 문을 닫아야 했고 마을도 비워야 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진 지 넉 달에 가까워지고서야 겨우 70%의 등교율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모두 긴장감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부모님의 오토바이에 실려 학교에 옵니다. 우기가 6개월이나 돼 일 년의 절반을 세차게 내리는 열대의 비를 뚫고 와야 하고, 건기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달려와 먼지투성이가 된 채 교실에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 가운데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아이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디지털 세계 깊숙한 곳을 탐험하고 있을 때, 동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AI를 배우며 첨단 과학의 세계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만, 뽀디봉과 같은 마을에서는 연필 쥐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용의 꼬리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뽀디봉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하나둘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화면을 통해 디지털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용의 머리로 이어지는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먼저 디지털 세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트북부터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용의 몸통을 타고 머리 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일도 뒤따라야 합니다.

수레꾼은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금씩 용의 머리 쪽을 향해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③ '동국불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상으로 몸과 마음 밝히는 학생들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경찰사법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 있으며 자주 떠올립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심에 불을 지피기 위해 수많은 인연과 노력이 하나로 모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전법의 원력으로 단과대별 불교동아리를 신설하신 이사장 스님, 그 원력에 일심으로 움직이시는 총장님과 건학위원회 구성원들, 전국의 지역 미래불자장학 후원 사찰, 학교 신행생활의 기본 토대인 정각원, 그리고 각 단과대를 맡아 지도하는 법사 스님과 지도 교수님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법회에 나오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는 동아리 운영진 법우들까지. 이러한 대작 불사의 구성을 종립대학 동국대학교 말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지 놀랍고도 감탄스럽습니다.

이사장 스님의 "지계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 아래 이 구성원 속 저의 역할은 뚜렷했습니다. 바로 동국대생들에게 '동국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탈종교 시대,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인연이 되어 함께 소임을 맡은 타 단과대 18분의 지도법사 스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경찰사법대 교수님들과 함께 불공 올리는 마음으로 공을 들인 결과, 아이들이 처한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불교는 청년들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
고충 多 학생에 불교 자비·지혜 알려
다양한 명상 체험으로 회원 크게 늘어

불교는 청년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막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며 느끼는 긴장감, 더 넓어지고 복잡해진 대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 늘어난 경제적 부담, 학생 신분과 예비 사회인의 경계에서 오는 막막함 등 '삶은 고(苦)'라는 대전제처럼, 빛나는 청춘의 이면에 내재된 고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사법대학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사법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범죄 사례를 접하는 특성에 따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가 때마침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상수행 코칭이라는 저의 전공을 살려 지도교수이신 선학과 학과장 정도 스님의 인준 아래 여러 명상 전공 선생님들을 초빙해 법우들에게 양질의 명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어 간단한 경전 말씀을 전하고 싱잉볼 소리명상, 차명상, 아로마명상, 꽃꽂이명상, 걷기명상, 호흡명상 등을 함께 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법우들이 몸과 마음이 산뜻해져 밝은 얼굴이 됐고, 법회는 힐링이자 지혜와 자비를 쌓는 이로운 시간이라는 인식이 잡히니 그 후로 회원 수가 크게 늘고 활동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반전도 있었습니다. 법회 내용이 좋아 학생들이 많이 온 줄 알았더니 간식의 인기도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른 곰인 줄 아는 아기곰 같은 귀여운 법우들 덕분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법우들은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이 지금도 통한다는 사실을 신기해하고, 본인이 만든 염주를 아픈 할머니께 드리겠다는 예쁜 마음도 냅니다. 이처럼 보시를 통해 감동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불교를 느끼며, 스님들과 가까이서 얘기 나눌 수 있어 좋다는 이들이 있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간식을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캠퍼스 일상에서 불자로 거듭나도록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경 스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캠퍼스테이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⑨ 임진왜란과 꽃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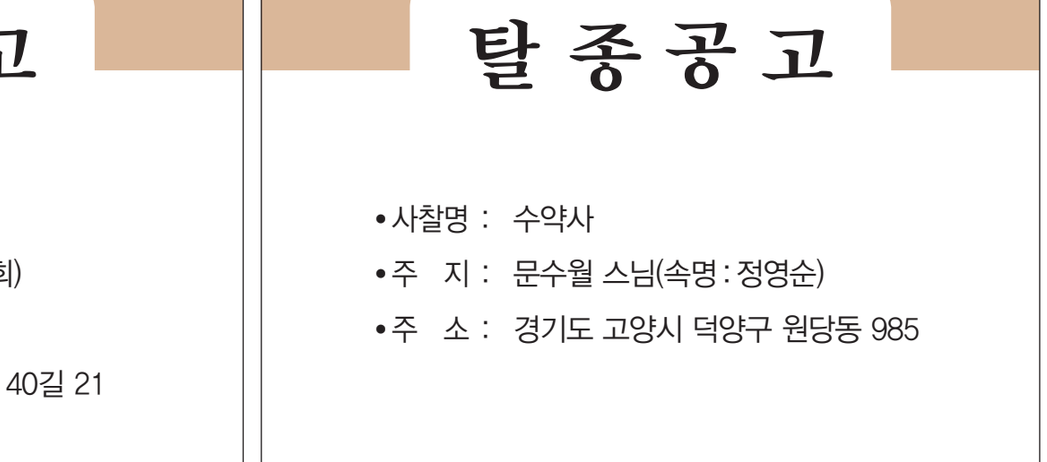
사찰 문살에는 언제부터 '꽃'이 피었을까. 우선 오래된 건물부터 보자. 현존하는 건물 중 건립 시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봉정사 극락전은 어간에만 출입문이 있는데, 아예 문살이 없는 '널문(판장문)'이다.

이 건물이 지어진 때는 1200년대 초로 추정한다. 1308년에 지어진, 건립 연대가 밝혀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수덕사 대웅전 전면은 모두 문살을 사선으로 교차시켜 짠 '빗살문'이다. 1376년에 지어진 부석사 무량수전 전면의 문은 모두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짠 '교살문'이다. 고려 시대 말까지 '꽃살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꽃살문의 백미, 꽃살문의 클래식을 만나려면 내소사 대웅보전으로 가야 한다. 조선 시대 소목장들이 절정의 솜씨를 발휘한 공예품 같은 꽃살문이다. 사실 '공예품' 같다는 표현도 결례다. 이런 솜씨를 발휘한 목수들의 마음자리에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식의 의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석굴암과 불국사, 고려청자, 조선백자를 만든 장인들이 그랬다.

내소사 대웅보전이 지어진 때는 1633년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지어지고 257년이 흐른 다음이다. 이 기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문화 현상에서 양식의 변화 양상은 경사로보다는 계단에 가깝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계단은 '임진왜란'이다. 현존하는 사찰의 꽃문은 임진왜란 후 인력과 재원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대웅전(주불전)을 중심으로 사찰을 재건한 시대의 산물이다. 다포식 공포, 닫집, 천장 장엄 등이 이 시기에 이뤄졌고, 18세기 들어서는 규범적 양식으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손영자 작가



내소사 대웅보전.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보사
- 주 지 : 법련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8(태경타워 4층)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70(2026)년 3월 10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동구 옥수동 미타사
- 주 지 : 묘희 스님(속명 : 한묘희)
- 승 번 : 0177-0164
- 주 소 :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0길 21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귀 종단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수약사
- 주 지 : 문수월 스님(속명 : 정영순)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98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스님들의 존엄한 노년을 위해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랜 세월 선원에서 수행하다 사찰을 창건하고, 30년 가까이 가람수호와 포교에 매진해 온 비구니 어른 스님 두 분이 계신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조용히 병구완하며 지낼 소박한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찰을 이어 맡을 원력 있는 스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 올 스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별도의 거처를 마련한다는 사정을 알기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필자가 아는 70세 이상 어른 스님의 처소는 제각각이다. 대중처소에서 지내거나 상좌가 모시기도 하지만, 홀로 사찰이나 토굴을 지키거나 불교계 요양시설에 머물기도 한다. 심지어 아파트나 일반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스님도 있다.

일반 사회의 어르신들은 선택지가 다양하다. 자택 통합돌봄 서비스나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거나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의지할 수도 있다. 반면 스님들의 노년기와 생애 말기는 어떠한가. 출가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힘쓰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승가의 보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며 생을 마무리할 것이라 여겨 왔다. 은사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곁에서 시봉하며 함께했던 필자에게 이러한 수순은 당연한 것이었다.

종단 차원 체계적 제도 기반 마련 필요
교구별 전담 인력, 노후수행관 마련하고
노후수행관 운영 사찰 소임 제도화해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노구의 스승 곁을 지킬 권속도, 노후를 의지할 대중처소도 충분하지 않다. 외호대중 역시 넉넉하지 않다. 결국 노년을 보낼 거처와 삶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많은 스님들이 평생 가람수호와 전법에 매진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현재 조계종 승려의 약 32%가 65세 이상이다. 20년 뒤 그 비율이 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종단 토대이자 전법 주체인 승가가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교구별로 승려복지를 담당하는 소임자가 고령·독거 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구마다 재직승과 재적승을 돌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비구·비구니 노후 수행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도시 근교에 토지를 보유한 말사나, 점차 비어 가는 사찰 시설을 보완해 노후 수행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 해당 수행관을 운영하는 사찰에서 소임을 맡도록 제도화한다면 사찰은 소임자 수급의 어려움을 덜고, 노스님들은 승가의 보호 속에서 여법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스님들에게는 늙음과 병듦,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 자체가 살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

종단의 의지와 교구별 전담 인력, 노후 수행처와 요양원이 마련된다면 평생 가람수호와 전법에 헌신해 온 스님들이 기쁘게 소임을 내려놓고 승가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존엄하게 늙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가에서 임종까지 승려의 완전 복지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누구나 볼 권리, 보편적 시청권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국민 다수가 동시에 시청하며 공동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의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보편적 시청권이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나 문화 이벤트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스포츠 이벤트를 단순한 상업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에 가까운 콘텐츠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특정 유료 플랫폼이나 일부 이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가능한 많은 국민이 주요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로 이해된다. 이는 문화 향유권과 미디어 공공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방송법과 관련 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 행사 개념을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는 국민적 관심 행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 플랫폼을 통해 중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중계가 특정 유료 플랫폼에 독점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공성과 시장 논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스포츠 중계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방송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OTT 플랫폼이나 대형 미디어 기업이 중계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 이벤트가 특정 플랫폼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정 플랫폼 가입자만 보는 스포츠 중계
해외선 무료 방영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우리나라도 보편적 시청권 위한 제도 要

국내의 경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은 이러한 우려를 다시 촉발시켰다.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JTBC와 지상파 방송 3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 접근권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계 올림픽이 국민적 축제로서의 빛을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결승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목록으로 지정하고 무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무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도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보편적 접근 기준이 필요하다. 동시에 스포츠 중계권의 상업적 가치와 국민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보편적 시청권의 핵심은 결국 누구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이벤트를 지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중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문화적 순간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중요한 스포츠 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社 說

1366 상담 노동자 호소 외면 말아야

1366.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다. 365일 24시간 운영돼 피해 여성이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국가 공공 안전망이자, 관계 기관과 연계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대응 창구다.

그런데 여성 인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3월 12일, 1366 서울센터 상담원들은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 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상담하고 싶다"고 외쳤다.

이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3교대 근무 제도 개선,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침해와 고용 불안을 호소했으나,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수탁기관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복잡한 위탁 구조 속 책임 공방 지속
사회 약자 보듬는 불교계 실천 절실

상담 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 속에서 한 달에 많게는 7~8차례 밤샘 근무를 한다.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회복 시간도 없이 다시 업무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근무 형태가 인체 리듬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장 상담사들은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상담원의 잦은 이직과 인력 공백을 야기하고, 이는 곧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복잡하게 얽힌 책임 구조다. 1366은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가 운영 주체지만 지역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돼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 기관은 서로의 소관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사이에서 현장의 노동환경은 방치됐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기관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여성폭력 대응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사회적 과제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적정 인력 확보와 고용 안정, 합리적인 교대근무 체계 마련,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불교사회복지를 강조해 왔다. 새해 첫날에는 소외 이웃과 함께 108배를 올리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발원했고, 노동·인권·빈곤 문제 등 우리 사회 현안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사말에서도 "무량한 자비심으로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조계종이 더욱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은 불교사회복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단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3월 1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3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3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지구사랑 캠페인

“물과 불, 바람이 원만 순환하여, 공용으로 물이 불어나지 않게 하소서!”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지수화풍에서 나와
지수화풍 속에서 살면서,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 대행 선사 법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생활 속에서 꽃 피우는 자비 실천 - EM사용하기

www.smallactions.co.kr 한마음선원EM지구사랑작은실천 @earthloveaction